

광 고

원양산업

제 1140 호
(2021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 신조, 조업 시작 / 4
- 아그네스수산 허옥희 대표, 장보고대상 수상 / 5
- 티앤에스산업, 국내 최초 남극아발고기 어업 MSC 인증 획득 / 6
- 해양수산부, 해외합작 원양어업 관세 감면 조건 완화 이끌어 / 7
-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 7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8

■ 요리 만들기 / 19

(콩치김치찌개)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1년 11월 보고 내용 / 20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PNA 선망선 어획량 급감 후 소폭 증가 / 24
- 방콕 가다랑어 가격, 만타 가격 추월해 / 24
- WCPFC 연례회의, 어획 전략 합의 없이 종료 / 25
- 키리바시, 피닉스제도 보호구역 참치 어업 개방 / 26

- PNG-FIA 어업, 눈다랑어 MSC 인증 획득 / 26
- 태국 3분기 가다랑어 수입 누계, 5년 최고치 / 27
- Pacifical, GSA 인증 취득 추진 / 27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930엔 돌파 / 28
- 日 도요시시장 냉동 눈다랑어 1,100 엔 돌파 / 28
- 日 재무성, 10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9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51 달러 기록 / 30
- IOTC 특별 회의, 신규 FAD 조치 없이 종료 / 30
- Princes 모리셔스 공장, 바이오가스 프로젝트 추진 / 31
- 모리셔스 참치업계, 지속가능 참치 협회 출범 / 31
- 에콰도르, 중국산 로인 수입 비중 증가 / 32
- 오만 기업, 참치 선망선 2척 신조 계약 체결 / 32
- 캔 비용 부담, 역대 최고 수준 / 33
- Friend of the Sea, 어선 인증에 위성 모니터링 요구 / 33
- 대만 참치 업계, CCTV-블록체인 도입 추진 / 34
- 대만 FCF, 글로벌 이력추적 프로젝트 참여 / 34
- ICCAT, 내년 눈다랑어 TAC 6만 2,000톤 설정 / 35
- 동부태평양 3분기 참치 누적 어획량 증가 / 36
- 美 3분기 참치캔 수입량,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 / 36
- EU 3분기 참치캔 누적 수입 40만 5,845톤 / 37
- 프랑스 참치캔 수입량 유럽 내 최고 / 37
- 英 참치 소매가격, 유럽에서 최저 수준 / 38
- 참치, 유럽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 38
- EU 참치 자속로인 3분기 수입 누계 14만톤 / 39
- 식물 기반 참치, 타임지 2021년 최고 발명품 선정 / 39

Contents

- 대서양 소규모 어업자, 산업형 어업에 '오염자 부담' 원해/ 40
- 말레이시아 정부, 인도양 참치 어업 독려 / 40
- 필리핀 기업, 참치 공급망 최초 BSP 인증 취득 / 41
- 인도네시아, 외국 참치 선단에 EEZ 개방 추진 / 41
- 태국 Asian Alliance, 공개상장 목표 / 42
- 타이유니온,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두 번째 발행 / 42

■ 오징어어업 동향

- 47주차 오징어 가격 / 43
- 중국, 공해 오징어 어업에 어선 수 제한 설정 / 43

■ 명태어업 동향

- 내년 러시아 명태 TAC, 올해 이어 미소진될 수도 / 44
- 中 다렌 가공허브,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쇄 지속 / 44
- 美, 2022년 알래스카 명태 TAC 감축 가능성 높아 / 45
- 中 신규 라벨 규정으로 러시아 명태 업계 반발 / 45
- 러시아, 투자쿼터 제2탄 법안 발표 / 46
-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안, 하원서 승인 / 46
- 러시아, 수출 중심 수산 사업에 세금 인상 추진 / 47
- 러시아 냉동 수산물 48주차 가격 / 47
- 노레보, FEST 그룹 어업 자산 인수 / 48
- 러시아 Sistema, 명태·연어 어업 회사 인수 추진 / 48

■ 공치어업 동향

- 日 '21년 11월 말 공치 어획량, 약 1만 8,000톤 / 49
- 日 냉동 공치 재고, 최초로 6,000톤 미만 기록 / 49

■ 각국 수산 동향

- WTO 각료회의 연기 / 50

- 美-中, WTO서 강제노동 문제로 충돌 / 50
- ISSF 회원사, 보존조차공약 준수율 100% / 51
- UN “운임 급등, 수년간 세계 무역에 심각한 영향” / 51
- FisheryProgress, FIP 대상 요구사항 완화 고려 / 52
- EU, 산림파괴 상품 수입 금지 법제화 추진, 다음은? / 52
- 노르웨이 Rimfrost, 선상 가공 크릴 어선 신조 / 53
- 노르웨이 어업 회사, 수소 연료 연승선 신조 계획 / 53
- 대서양대구 H&G 가격, 14년만의 최고가 근접 / 54
- 러시아, 태평양대구 TAC 감축 / 54
- 페루 9월 양륙량, 저수온강한 바람으로 감소 / 55
- Européche, 어선원노동협약 하회 라벨 배제 주장 / 55
- 덴마크 어구 회사, 선택적 조업 장치 개발 / 56
- 日 마루하니치로, 가정용 냉동식품 가격 인상 / 56
- 중국, 기존 수산물 브랜드 소비 우위 / 57
- 일본수산, 가정용 연육 등 가격 인상 / 57
- 11월 노르웨이 청어·고등어 수출 감소, 가격 상승 / 58
- 러시아, 올해 고등어 어획량 대폭 증가 / 58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로 가면 <박인혜> / 59

■ 국내 수산 뉴스

- 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 60
- 제18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 개최 / 61
-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 / 61
-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선사와 남서대서양 과학연구 선도 / 62
-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장 임명 / 62
- 방탄소년단 진 '슈퍼참치' 열풍 / 63
- 올해 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 63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 신조, 조업 시작

원양어선 안전펀드 3·4·5호, 12월 중 출항 예정

올해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사업으로 대체 건조된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이 12월 중 부산에서 출항해 내년 1월말부터 대서양 포클랜드 어장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사업은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척, 이번에 3척이 안전펀드 지원으로 건조되었다.

이번에 조업에 나서는 어선은 가나마린의 '105 금양호', 동원해사랑의 '805 통영호', 해인수산의 '21 은진호'이다. 3척은 각각 1990년 건조된 '102 금양호', 1979년 '303 통영호', 1967년 '21 해인호'를 대체해 건조되었다. 이 어선들은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개발한 원양 오징어 채낚기 표준선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연간 15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강남조선에서 건조되었으며, 2020년 9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에 건조가 완료되었다.

이 어선들은 500톤 규모로, 거주구역 내부는 쉽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고 구명정 1대와 구명뗏목 4대를 비치하는 등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추어 기존 어선보다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동 사업으로 건조된 2척(승진수산 '801 승진호',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 110호')과 이번에 건조된 3척은 지난 9월 안정적인 입어를 위해 영국 및 포클랜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한 점검에서 최상위급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5척의 신조선이 케이프타운 협정(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매우 우수하게 설계되었으며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도 안전펀드 예산으로 1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5 금양호〉



〈805 통영호〉



〈21 은진호〉



아그네스수산 허옥희 대표, 장보고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아그네스수산(주) 허옥희 대표가 장보고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허옥희 대표는 국내 원양산업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선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등 시상자와 수상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석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 허옥희 대표는 수상 소감으로 『원양어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선박 안전과 선원들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작년에 안전핀드 1호인 채낚기 신조선 아그네스 110호가 출항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출항식 때 함께 하고 지원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장보고대상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는 수상하는데 도움을 주신 협회 및 원양업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별도로 전했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작년까지 총 70명이 장보고대상을 받았으며 원양업계에서는 2010년 금평수산 김학률 대표가 국토해양부장관상, 2015년 동원수산 왕기철 대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선정되었고, 예비심사 및 본 심사, 후보자 공개검증 및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수상자 6인(단체)이 결정되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농림수산축산청은 ‘깨끗한 해양환경 만

들기’ 사업 등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력을 한 단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 서천 갯벌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황상석 관장, 해양수산부장관상은 해양과학연구선 이사부호가 각각 받았다.

이 외에도 특별상인 내일신문 사장상과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각각 선정되었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하며, 국무총리상(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해양수산부장관상(각 500만 원) 등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여섯 분의 수상자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글로벌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21세기의 장보고”라며, “앞으로도 장보고대상을 통해 보다 많은 해양수산인들의 노고와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앤에스산업, 국내 최초 남극이빨고기 어업 MSC 인증 획득 남빙양 수산자원 지속관리 능력 인정받아

티앤에스산업(주)(대표 정태빈)이 지난 11월 15일 국내 최초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협약수역인 로스해(Ross Sea) 남극이빨고기(메로) 저연승 어업에 대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

남극이빨고기 저연승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은 티앤에스산업이 국내 최초이다. 티앤에스산업은 이번 인증으로 세계적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업 선진 국가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남빙양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양 기업이 남빙양 수산자원 지속관리와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해 MSC 인증을 획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MSC는 불법 어획, 남획, 해양환경 파괴 등의 활동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이다. MSC는 신뢰도가 높은 만큼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티앤에스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약 6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어려운 절차를 거쳐 MSC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티앤에스산업은 미세플라스틱 필터 설치, 과학조사,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티앤에스산업은 지난 2015년 합법적이빨고기어업자연합(COLTO, 이빨고기에 대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성 유지,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장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에 5년간의 심사 끝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했고 2019년 COLTO 가입 선사들과 같이 모든 선박에 국내 최초로 배출구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설치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3년간 CCAMLR 협약수역인 58.4.1해구, 2016년부터 5년간 88.3해구에서도 자원의 과학조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극 수역

과학 자료 수집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조업선 최초로 전자모니터링시스템(EM, 조업상황 자동녹화 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전 선박에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빨고기는 크릴과 함께 남극해의 주요 어족자원 중 하나이다. 주로 남극 수역에 집중 서식하는 남극이빨고기와 남위 약 40도 이남에 분포하는 파타고니아이빨고기로 나누어진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급 식재료로 원양 기업들이 어획한 이빨고기는 대부분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빨고기저연승 어선은 총 3개사 10척으로 이 중 4척이 티앤에스산업 소속이다.

원양산업협회 최경삼 전무는 『동원산업(참치), 정일산업(크릴), 한성기업(식품제조)에 이어 티앤에스산업(이빨고기)까지 MSC 인증 취득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지속가능 인증 획득을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티앤에스산업 정태빈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에 주력해온 노력이 이번 인증으로 이어져 기쁘고 앞으로도 ESG(환경·책임·투명) 경영, 특히 E(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외합작 원양어업 관세 감면 조건 완화 이끌어 합작법인 지분 24% 이상 보유해도 관세 감면 가능

해양수산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해외합작 원양어업에 대한 관세 감면 조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

기존에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원양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 감면을 신청·배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해외현지법인에서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합작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 이상을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건

이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은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실·국장, 원양산업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 준 결과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세 감면 조건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원양업계는 이번 관세 감면 조건 완화로 해외어장을 유지·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속적인 해외 수산 식량자원 확보와 원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해졌고, 향후 원양산업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원양업계, 협약 비준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 전달

해양수산부는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협약내용과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과 24일,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 원양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김석훈 과장과 김환 담당사무관이 참석했고 원양업계는 우리 협회를 비롯해 경양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한성기업 등 13개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 간담회 시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도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협약 내용과 국내 선원법령 간 갭 문제를 설명했다. 특히 원양분야 쟁점사항인 최대승선기간과 휴식시간 문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원양업계는 주요 쟁점사항인 “휴식시간”과 “최대

승선기간” 등에 있어 업종별로 수용여력 차이가 있고 협약 비준 시 업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취약 업종은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조업경쟁국의 협약비준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제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양어업을 둘러싼 종합적인 외부여건과 국제환경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양어선원 휴식시간 규정 및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을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노사가 제안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선원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021년도 연말 원양산업발전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의뢰(전회원사)
 - 2021년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표창
 - * 제출기한 : '21.11.17
- 2022년도 수산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해수부 원양산업과)
 - 추천자 3인
-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 전문관 교육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지원 전략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3, 10:00 / 르호봇(세종) 대회의실
 - 참석자 : 총무부 부장
 - 내용 : 관계자 의견 청취
 - * 용역기간 : 2021.11.29~2022.4.28 (약 5개월)
- 『원양업계가 바라는 해외수산협력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 외부전문가 교육 참석
 - 일시/장소 : '21.12.3, 13:30 / 르호봇(세종) 대회의실
 - 참석자 : 기획홍보부 이사
- 협회비 관련 업무추진
 - 가. 10월분 업종별회비 부과
 - 나. 미납업체 납부 독려
 - 1년이상 미납사 : 해당사항 없음
 - 6개월이상 미납사 : 7개사

- 협회 일반회계 총수지 예상 분석 업무추진
 - 금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예상액 등 자료 분석
- '21. 11월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수입 및 지출 전표 작성 등
- '21. 11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2022년 정기총회 관련 주요일정
 - 제15차 이사회 : '22.2.24(목) 11:00
 - 22년 정기총회 : '22.2.24(목) 14:00
- 수산어촌분야 미래발전방향 원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8, 13:30 /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
 - 참석자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해수부, 학계, 연구기관, 수협, 수산 관련 단체 등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미래 수산어촌 발전방향 발표, 분과별 토론 및 종합토론
- '21.11, 12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11월) '21.11.9 / 서면결의
(12월) '21.12.9 / 서면결의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11월) 1척 3.02억원 원안의결
(12월) 5척 19.00억원 원안의결
 - * 11월말 기준 16개사 643억원 대출(34% 소진)
- 수산어촌 정책심의회 연차보고서 심의의결
 - 2020년 수산업 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검토 후 심의 ⇒ 가결

- 원양산업지 11월호(제1139호) 제작, 발송(315권)
 - 협회소식 4건(케이프타운 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 원양업계 자체적 해양포유동물 부수어획 저감 조치 마련, 협력센터 이광세 신라교역 前 대표 초빙 교육 실시, 원양 어획물 요리 사진 제작)
 - 국내소식 6건, 해외수산정보 69건
 - 명예해양수산업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30호 11.10, 131호 11.17, 132호 11.24, 133호 12.1, 134호 12.8/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30호 정보 21건(식물성 식용유 가격 급등, 참치캔 가공업 타격/ WTO 의장, 수산보조금 합의안 제시/ CCAMLR, 이빨고기 TAC 17% 감축)
 - 제131호 정보 19건(방콕 가다랑어 가격 급등/ 중국, 공해 오징어어업 어선수 제한 설정/ 일본 콩치어획, 10월까지 9,444톤)
 - 제132호 정보 19건(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안, 하원서 승인/ 노르웨이 Rimfrost, 선상 가공 크릴 어선 신조)
 - 제133호 정보 21건(WCPFC 연례회의 개최/ 美 알래스카 명태 TAC 감축될 수도/ WTO 각료회의 연기)
 - 제134호 정보 20건(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930엔 돌파/ 러시아, 투자쿼터 제2탄 법안 발표/ 中 신규 라벨 규정으로 러시아 명태 업계 반발)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 홍보, SNS 게시
 - 티앤에스산업, 국내 최초 남극이빨고기 어업 MSC 인증 획득(11.24, 일간지, 수산전문지, 인터넷 언론사)
 - 지면 : 수산신문(11.29, 2면), 한국수산경제(11.29, 2면), 어민신문(11.29, 5면), 한국수산신문(11.29, 8면)
 - 온라인 : CEODAILY(11.24), e경제뉴스(11.24), 위클리서울(11.25)

-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관련 업무추진
 - 가. 2022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중간결과 보고
 - 동 소요액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해수부 보고
 - 나. 3년간 경영자금 대출내역이 있는 공해조업 선박 리스트 및 대출액 자료 제출(해수부)
 -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공해조업 선박에 대한 보조금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자료 요청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 관련 업무추진
 - 가. 업무 협의
 - 일시/장소 : '21.11.15, 14:30/ 부경대학교
 - 참석자 : 이상교 명예교수, 원양노조 / 기획홍보부 이사, 김영수 과장
 - 내용 : 연구용역 추진 경과 청취, 추진 방향 협의
 - 나. 원양노조와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보완 요청(12.6, 8)
- 원양 어획물 요리 레시피 및 사진 활용
 - 가. 협회 제작 원양 어획물 레시피 및 사진 송부(11.12, 회원사)
 - 각 회원사 홈페이지 등 활용 참고용으로 송부
 - 나. 홈페이지 게시
 - (참치) 참치회, 참치포케, 참치 짜글이, 고추참치 마요덮밥, 고추참치 메밀 비빔면, 참치마요 햄 무스비, 매콤참치 에그 핫도그, 참치 크림치즈 타르타르
 - * 동원물, 사조물, 사조회참치물 QR코드 게시
 - (오징어) 통오징어짬뽕, 오징어순대, 오징어전, 오징어볶음
 - (명태) 동태찌개, 황태구이, 코다리덮밥, 코다리강정
 - (콩치) 콩치 김치찌개, 콩치조림, 콩치파이, 콩치 김밥
 - * 동원물, 사조물 QR코드 게시
 - 다. 자체 촬영한 현장 스케치 영상 및 요리 결과물 활용 홍보용 영상 제작,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
- 2022년도 협회장 신년사 송부
 - 수산전문지 9개지

- 해외협력본부장 '한국수산업의 이해 원양어업 인터뷰(11.23, 11:00)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 학습 콘텐츠 중 한국수산업을 소개하는 과정 제작 중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내용 인터뷰 요청
- '21년 10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계	385,173	105
- 참치	234,383	97
· 횡감용	27,936	94
· 통조림용	206,447	97
- 명태	22,671	108
- 오징어	66,406	192
- 꽁치	3,584	99
- 기타	58,129	92

회원지원부

- 제36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참석
 - 일시/장소 : '21.11.11, 13:30 /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운협회, 해기사협회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양안전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업무
- 가. 승선근무예비역 민관협의체 업무협약식 참석
 - 일시/장소 : '21.11.16, 10:00/ 부산지방병무청
 - 참석자 : 부산지방병무청, 선박관리산업협회, 해기사협회 등/ 협회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민관협의체 협약내용 소개 및 협약서 서명 등
- 나.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배정선사/11.12)
 - 복무관리 부실 사유별 인원배정 제외범위 조정 등
- 다.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제3차 조정 결과 알림(배정선사/11.23)
 - '21년 배정인원 55명 → 3차 조정인원 47명
- 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 알림(배정선사/12.10)

-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가. 서울
 - 일시/장소 : '21.11.17,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업계 / 최 전무,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사원

나. 부산

- 일시/장소 : '21.11.24,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노조, 원양업계 / 부산지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어선원노동협약 내용 설명 및 업계 의견청취 등
- 2021년 제4차 한국해양연수원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18 / 서면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 및 이사회 임원 / 최 전무
 - 내용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등 심의
- 주부식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TF 사측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3차) '21.11.18, 16:00 / 영상회의
 - (4차) '21.12.2, 16:00 / 영상회의
 - (5차) '21.12.10,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장 TF 담당 위원 / 최 전무,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사원
 - 내용 : 주부식비 운영관리 방안 논의
- WTO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관계부서 협의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22, 13: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원양산업과, 소득복지과, 수산자원정책과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사항 협의 및 정부 입장 정리 등
-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규정준수를 위한 업무협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23, 16:00 / 협회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관련 업무협의 등

○ 한국해양연수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가. 2021년 제2차 한국해양연수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25 / 서면회의
- 참석자 :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 최 전무
- 내용 : 연수원장 지원자 서류심사 등

나. 2021년 제3차 한국해양연수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29, 13:00 / 서울역
- 참석자 :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 최 전무
- 내용 : 연수원장 지원자 면접 및 의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해양수산분야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1, 14: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 관련 단체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준비사항 안내 등

○ 제11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12.1, 14:30~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부장, 사원
- 내용 : 주부식 표준식단 마련을 위한 TF 경과사항, 선원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TF 경과사항 보고 및 협의 등

○ 2021년 선원정책 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3, 14:00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참석자 : 해수부,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선원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제안 등

○ 선상투표 준비에 따른 대상선박 등 현황자료 제출 (해수부/11.8)

- 대상선박(180척)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EU 수출수산물 위생관련 EU측 실사 대비 협조요청(회원사/11.12)

- EU 수출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격점검 예정
- '21.12.6~12.17일 기간 중(2주)

○ 2021년 하반기 외국인 원양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협조 요청(회원사/11.15)

- '21.11.15~12.17일 중 입항한 선박 대상
-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지급 수준 및 체불여부, 폭행·여권압수, 인권침해 여부 등

○ 2022년도 해외선원모지 관리사업 시행지침(안)에 대한 의견 회신(해수부/11.18)

- 금년과 동일한 국고보조 100% 지원 의견 제출
- * 정부안 : 사업비 중 국고 90%, 자부담 10%

○ 2021년도 원양어선원 해외모지 관리사업비 2차분 송금 알림(해당 한인회/11.23)

- 사업비 2차분 송금 알림 및 수령 확인 요청

○ '21년 해운물류분야 유공자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회원사/11.23)

- 선원정책 유공 관련 후보자 추천 요청

○ 선원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회원사/11.26)

- 법률상 근거가 사라진 지침 조항 삭제 등

○ 임금채권 및 송환기금증서 관련 업무 추진 (11.30, 12.7, 12.8)

가. 승계 : 가나마린 102금양 → 105금양(오징어채낚기/499톤)

나. 승계 : 해인수산 21해인 → 21은진(오징어채낚기/499톤)

다. 협회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재발급 안내 (회원사/12.8)

○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사항 이행 철저 요청(회원사/12.1)

-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등 선원법 개정사항 이행 철저 요청

○ 2021년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알림 (회원사/12.2)

- '21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알림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이사 선임 등기 관련 공증용 서류제출(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12.3)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이사 선임 및 등기업무 필요 서류 제출

- 수산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 선사의 선원 채용 관련 조사 협조 요청(회원사/12.7)
 - 17-21년 선원 채용실적 및 2022년도 채용계획 조사
- 2022년 원양어선 국내항 입항 일정송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12.9)
 - 2022년 입항계획 선박 18개사 67척
- 제4차 노사정합동점검 예정 안내 및 이행 현황자료 제출요청(회원사/12.8)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항목별 이행현황 자료 제출 요청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마산, 통영검역소/11.8, 11.9, 11.16)
 - 12명(한국 11명, 필리핀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11.19 기준)
 - 1차 접종(623명) / 2차 접종(399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1.18)
 - 4개사 5척 28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퇴소 신청 서류 변경 알림(회원사/11.18)
 -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제재 기준 변경 알림(회원사/11.18)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부산 검역소/12.8)
 - 2명(한국 2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12.10 기준)
 - 1차 접종(641명) / 2차 접종(503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2.3)
 - 2개사 3척 19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 조정사항 안내 (회원사/11.30)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알림(회원사/12.2)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 안내 (회원사/12.3)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1년도 3분기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알림 (회원사/11.8)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9)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11)
 - 2021년 12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 (회원사/11.11)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12)
 -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해적피해 예방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18)
 -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조치 당부(회원사/11.2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증가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25)
 -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 미수사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2.2)
- '21.10월분 원양어획물 수출실적 확인

구분	누 계(2021년 10월)			
	수출물량 (kg)	전년 대비	수출금액 (\$)	전년 대비
통조림 용참치	121,543,878	96.5%	152,012,517	102.9%
훈감용 참치	10,073,204	80.7%	100,842,765	135.8%
저서 어류	1,746,713	69.8%	22,654,712	76.4%
오징어 류	305,272	-	1,139,114	-
새우류	14,995,360	115.1%	13,243,775	132.6%
기 타	569,920	287.3%	1,332,405	384.8%
합 계	149,234,347	96.8%	291,225,288	111.2%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27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021.11.13-23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일본, 세네갈 등 ICCAT 회원국 / 협력1부 주임 외 1명
 - 내용 : 열대성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논의, 국별 이행사항 평가 등
- 제12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021.11.9,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 출어사 / 협력1부,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원양어선 선원수급 문제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사항 재협의, MMPA 대응을 위해 한 형남시 사용 의무화에 이견없음.
- 원양어선의 EM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21.11.10, 14:00 / 정부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과학원, 조업감시센터, 해양수산개발원, 켄컴 / 협력1부 과장
 - 내용 : 연구 용역 최종 보고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원양어업 거북, 포유류 혼획 저감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1.11.12., 14:00 / 정부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 협력1부 과장
 - 내용 : 해양포유류 혼획 관련 업종별 대응조치 논의 등
- 해양수산 ODA(어촌뉴딜) 관련 회의 참석
- 가. 원산과-업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1.11.18., 13:3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해외수산협력센터, 선망 업계 / 협력1부
 - 결과 : 원산과가 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팀 등과

협의하여 수원 요청서를 키리바시, 투발루에 송부키로 함

나. 후속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1.11.24(수), 14:00 / 서울역
- 참석자 : 해수부, 어촌어항공단, 협력센터, 업계 / 협력1부
- 내용 : 어촌 뉴딜 ODA 사업 아이템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협의

다. 1차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1.12.7, 13:3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한국농어촌공사, 항만협회, 바다공동체조선, 도화엔지니어링, 협력센터, 업계 / 협력1부 과장
- 내용 :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사업 계획(안) 검토

○ 원양어선 전자조업 감시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사업 최종 보고회 참석

- 일시/방식 : 2021.11.18.,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조업감시센터, 켄컴 / 협력12부

- 내용 : 전자조업 감시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사업 최종 보고 및 질의응답

○ 제18차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관련 업무추진

가.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021.11.23,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업계 / 협력1부
- 내용 : 열대성 참치 등 보존조치 재개정 논의 및 우리나라 입장 수립

나. 연례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021.11.29-12.7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일본, FFA 등 WCPFC 회원국 / 협력1부
- 내용 : 주요 어종 자원상태 파악, 열대성참치 보존조치 패키지 조항 현행 유지(2년), 주요 보존관리조치 개정 등

○ 전제 관련 업무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21.11.23, 16: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 협력12부
- 내용 : 전제업무 인계, Kfims 접근 권한 요청 시
필요사항 확인

○ 제13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021.12.7, 16: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 출어사 / 협력1부
- 결과 : 차량계량소 운영자금 일시 부족 경비 집행
방법 결정, 노사위원회 근로조건 개선안에
동의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한-미 양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 저
감계획 보완 제출 (해수부)
- ICCAT 북방청상아리 조업 금지 규정 안내
(대서양 출어사)
- 대서양 트리스탄 다쿠냐 제도 도서 25마일 이내
항해금지 안내(전 회원사)
- 지역수산물기구 전제 보고 업무 담당기관 변경 안내
(협회→CFMC)
- 지역수산물기구 어획할당량 소잔전배현황 제출(해수부)
- CCSBT 남방참다랑어 10월 어획실적 및 12월 양
륙계획(해수부·수품원)
- ICCAT 해상전제 허가선 추가 목록 제출(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2022어기 입어 허가장 신청 안내(참치선망)
- FSM 수역 사전 입항(전제) 보고 준수 당부
(참치선망)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참치선망)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 2022어기 참치선망 입어협상 결과 제출(해수부)
- 차량계량소 직원 임금(안) 의견 조회(참치연승)
- 2022어기 수역별 입어로 배정(참치선망)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참치선망)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업무추진

- 한성기업 준성호 선원수 변경으로 허가장 변경
(11.8 / 연해주수산청, 해수부)
- 러수역 감독관 승선경비 '21.5~10월분 납부 추진
(11.8, 11.11, 11.18 / 동북극국경수비대, 러수산
청, 북양·대구출어사)
- 러시아수역 조업선 통제감독관 승선관련 내용알
림(11.26 / 북양위원사)
- '99오양호' 11월 25일 조업종료(11.23 / 사조오양)
· 체크포인트 Vostok-8에서 감독관 하선 후 기상
악화로 Vostok-6로 이동
· 12.1~4일간 쿠릴열도(이투릅섬) 주변에서 피항

나.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러시아수역 조업선 입어로 송금알림
(12.1. / 해수부, 주러시아한국대사관)
- 러조업감시센터(CFMC) 인보이스 서명 및 제출
(12.3. / CFMC)
- 콩치붕수망 조업선 어기종료(12.7/ 10척, 어장철수)
· 총어획량 : 390,651편(약 3,906톤, 전년 5,993톤
대비 65%수준)
- * '21-'22 NPFC 공해 어획제한량(12,455톤)의
31%수준

다. 러수역 조업보고(11.21-11.30)제출

- (12.1 / 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 명태 : 25,725톤(91%소진),
대구 : 3,462톤(69%소진), 콩치 0톤

○ 북양합작 업무추진

가.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현황 일제조사 알림
(12.6. / 전회원사)

- 미신고(변경, 폐업 등) 업체의 신고기한 :
' 21.12.31
- 기한 내 미회신 업체는 폐업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자로 간주, 해수부(누리집)에서 폐업공고 후 폐
업수리 예정

- 나. '22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수요조사
알림(12.7. / 한·러위원회, 뉴지합작출어사)
- 물량수요('22.16일한), 관련서류(사본 : ' 22.1.12
한(협회, 원본 : '22.1.14한/해수부)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가. 포클랜드에서 위생검사증서 재발급 협조요청(대방사)
- ' 22어기 입어시 1척(승진801) 재발급 협조키로
함(11.19 / 포클랜드 위생국)
나. 선원복지분야 방문감사보고서 초안 접수/안내
(11.17)
- 어로계약서 개발, 선내보관처리, 사고보고서 관
리, 주의사항 등
다. 선주측 우선순위목록('22어기) 제출
(11.17 / 대방사)
라. 몬테비데오 채항선(19척) 사전점검
- (11.19현재) 프라티디나28, 101은해, 109은해,
108은해, 27해인 5척 수검완료, 15척 진행예정
마. 선원 계약서 관련 대방사와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 21.11.19(금),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드래곤社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FWA 계약서 및 어선원 계약증서 검토
바.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제7차 위원회
· 일시/장소 : 11.26,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 선원복지(C188-선원 표준계약서)등 컨
설턴트 지적사항 논의
- 제8차 위원회
· 일시/장소 : 12.3,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내용 : 한국인 근로계약서(외국인 표준근로계약
서 사용) 및 입항순서 논의
사. 포클랜드 주재원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12.7, 10:00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포클랜드 주재원, 아그네스수산 / 해외협
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 포클랜드 주재원 파견 준비사항 등 업무협의

- 아. 남서대서양 오징어채낚기 기타 지원업무
- 2022년도 포클랜드수역 입어로 납부 알림
(12.1 / 남서대서양출어선사)
- 비상훈련 실시 및 월간 훈련상황 보고 재안내
(12.7 / 남서대서양출어선사)
· SOPEP(선상유류오염비상대응계획)훈련 매월
추가실시 및 보고
○ '22년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진행사항/문의사항 제출(11.11 / 해수부)
- 시범사업대상 : 한성기업(준성호) [예산 : 14억]
- 예산내역, 추진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특별검사,
구체지침 등)
나. 업무협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30, 14:00 / 해수부 지도교섭과
- 참석자 : 해수부 지도교섭과장 등 3명 / 한성기업
박재운 차장, 협회 해외협력2부 부장
- 내용 : 사업체계(해수부와 원양협회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의계약 체결), 사업지침관련
점검(준성호의 특별검사 수검, 표식, 어업
감독공무원의 교대업무/ 업무보고/ 보험)
○ 지역수산기구 업무추진
가. SPRFMO 선박등록 업무
- 오징어채낚기선 톤수 확인 및 선박정보 업데이트
제출(11.25 / 해수부)
- 선박등록 및 삭제 유의사항 알림(11.26 / 남서대
서양출어사, 동원산업)
나. CCAMLR 조업지원
- 88.1 및 88.2 소해구 A-B(북위 70도) 조업폐쇄
알림(12.9)
* 조업 종료 일시 및 시각 : 2021년 12월 10일,
UTC23:59
* 어구 투승 금지 일시 및 시각 : 2021년 12월 9
일, UTC23:59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
정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 예고 및 의
견 제출 알림(11.5 / 전회원사)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업무추진
- 가. 원양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관련 한·미 양자회의 결과 알림(11.10 / 남빙양자연승출어사, 오징어트롤출어사)
- 나. 원양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수정제출(11.12/해수부)
- 20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가. 20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별 지원금액 배정 결과 정정 신청 알림(11.19/ 원양물산, 정일산업)
- 나. 20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예산2차 교부 처리(11.16 / 원양물산, 정일산업)
- 다. 최근 5년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제출(12.6 / 해수부)
 - NPFC 등 11개 수역 척수/생산/금액('16-' 21.10)
- 원양어선현대화펀드사업 추진건
- 가. '21년 3척, ' 22년 2척 사업/예비사업자 모집공고(11.19)
 - 다가산업(601다가), 아그네스수산(101아그네스) 제출
- 나. '20, ' 21년 사업 관련 추진 동향
 - 105금양 / 21은진 : 시운전(11.18), 출장예정(12.7)
 - 805통영 : 시운전(11.22) 출장 12월 중순이후
- 다. 현대화펀드사업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12.2,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 서민혜 사무관 등 2명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 현대화펀드사업을 통한 중고선 도입가능성, 선사 신조동향
- 원양어업 허가제한 조정관련 선사간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12.10, 10: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남빙양 자연승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내용 : 원양어업 허가변경(오징어채낚기 → 이빨고기자연승)관련 업무협의(미합의) 및 기타동향(MSC, 과학조사, E-M) 협의
- 칠레국영조선소(ASMAR 마젤란조선) 대표단 방한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11.25, 10: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칠레국영조선소 대표 등 2명, 동원산업(김병진 상무 외 1명), 사조산업(김재한 팀장), 정일산업(박강휘 부장) / 해외협력2부장 등 3명
 - 내용 : 칠레 마젤란조선 관련 홍보 및 선박유치관련 설명
- 2021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업무추진
 - '21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증빙자료 제출(12.6 / 부산시)
 - 풍치선사 8개사 : 유류비 영수증, 어획/판매실적 등 증빙서류(' 21년도 10~11월)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89개사 786건(10.1~10.31) 계량
- 칠레국영조선소(ASMAR 마젤란조선) 대표단과 원양선사와의 미팅
 - 일시/장소 : '21.11.24, 10:00/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ASMAR 마젤란조선 곤살로 미트로비치 외 1명, 코삭교역 정동주 상무 외 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ASMAR 조선소 홍보
- '2021 하반기 외국인 원양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일시/장소 : '21.12.7, 15:00/감천부두
 - 참석자 : 부산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2명, 선원복지고용센터 1명, 원양노조 3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인도네시아 선원 4명에 대한 인터뷰 실시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10, 11:00/ 원양프라자 3·4층
 - '21.12.8, 11:00/ 원양프라자 3·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10, 11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10, 11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22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항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근로조건 개선협의회
 - 일시/장소 : (2차) '21.11.16, 10:30/부산지부
 - (3차) '21.12.8, 10:00/부산지부
 - 참석자 : (노측) 항운노조 7명
 -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3명
 - 내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현실화 요구 및 부대조건 인상 협의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6개사 8척(오징어채낚기3, 참치선망3, 참치연승2)
 - 출항 : 3개사 3척(오징어채낚기1, 참치선망1, 참치연승1)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제9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TCAC09)
 - 일시/장소 : '21.11.2~5.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IOTC 할당량 기준 수립 논의
- 나. 제5차 NPFC Planning and Development(PO05)
 - 일시/장소 : '21.11.24.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NPFC transparency policy, 전재 보존조치 개발 논의
- 다. IOTC 전자감시작업반(EMWG)
 - 일시/장소 : '21.11.15~17. / 화상회의
 - 참석자 :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수과원
 - 내용 : IOTC 전자감시 시스템 및 제도 개발 논의
- 라. 2021년 SEAFO 연례회의
 - 일시/장소 : '21.11.22, 24~25/영상회의
 - 참석자 : 수과원 정상덕 연구사,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주요내용 : 회원국 이행 사항 논의 및 하위 위원회 보고서 검토 및 채택 논의
- 마. 제27차 ICCAT 정기회의
 - 일시/장소 : 11.13~11.23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수과원, 수품원, FMC, 원협, 업계, 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내용 : 회기간 회의 보고서 채택, 보존관리조치 개정, 위원회 재정·행정사항 등
- OFIS 업데이트
 - 국제수산 월간동향 11월호 업데이트
 - 월간 일본 동향 11월호 업데이트
 - "ISSF, 2021년 전세계 다랑어 자원 현황 보고서 발간"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17건 업로드
- E-NewsLetter 10월호 발송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8건)

나. 명예해양수산물 임기 만료 관련 업무

- 세네갈/김점봉 임기만료(~ '22.1.3)
- 추천서 접수 기간: 2021.11.3.~11.12

○ 원양 ODA 확대 방안 협의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18, 13:30/ 원양협회 대회의실
(2차) ' 21.11.24, 14: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해수부 원산과 이규선 과장, 이성재 사무관, 원양협회, 한국항만협회, 협력센터, 업계 등 10명
- 내용: 어촌뉴딜300 ODA 사업 추진방안 협의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합작기업체 통계 관련 업무

- 합작기업체 조사결과 무응답 대체, 이상치 파악
- 임금, 어로원가 재계산(화폐단위 통일)

나. 자체통계품질진단 업무 수행

- 공표 일정 관련 계획 등록
- 자체통계품질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11.25.)

다. 원양어업 생산동향('21.9.) 작성 및 OFIS 게재

○ 2021년 정기협의회 및 제2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1.11.24 / 원양협회 회의실
- 참석 대상: 해외수산물투자협의회 회원사
- 주요내용: 협의회 안건 논의, 특별장의

○ 센터운영관련

가. 국제수산물협상전문관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지원

전략 수립 용역

-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 공개(11.2.)

- 입찰공고 나라장터 등록 (11.11.)

-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 및 참석 요청 공문 발송 (11.18.)

- 입찰공고 입찰 마감(11.23.)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연구용역 입찰공고 나라장터 개찰(11.26.)

- 연구용역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11.26.)





꽂치김치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꽂치 2마리(또는 꽂치캔 2개), 김치 1/4포기, 양파 1/2개, 대파 1/4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물 500ml

<양념장>

다진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된장 2작은술, 국간장 약간, 후추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김치를 한입크기로 자른 후 양파는 채썰고 대파, 청고추, 홍고추는 어슷썬다.
- ② 달군 냄비에 김치를 볶다가 꽂치, 양념장, 양파, 물 500ml 넣고 푹 끓인다.
- ③ 2의 냄비에 대파, 청고추, 홍고추를 넣고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발생

- 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에 따르면, 세네갈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 2건이 발견되었다.
- 다카르 Scat Urban에 머물다 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28세 남성과 다카르 호텔에 머물다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려던 여성 1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 세네갈 다카르항, 아비장항과 협력 추진

- 지난 11월 8일, 세네갈 다카르항 대표단은 코트 디부아르 아비장항을 방문해 아비장항 대표단과 항구 업무 및 협력에 관하여 논의했다.

다. 세네갈 마키살 대통령, Rossoi 교량 건설 착수식 참석

-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El Ghazouani 모리타니 대통령은 양국을 연결하는 1.5km 길이의 Rossoi 교량 건설 착수식에 참석했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297
	1.8kg	1,252
	1.5kg	1,118
황다랑어	10kg	2,250
	3.4kg	1,342
	1.8kg	1,252
눈다랑어	10kg	1,297
	3.4kg	1,297
	1.8kg	1,252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516 유로/MT	경유	'21.11.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현재 일 평균 약 1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차 접종률은 성인 기준 약 91%
- 11월 25일 홍콩발 항공편 탑승 피지 입국자 중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피지인 2명이 오미크론 변종 감염자로 확인되었다.
- 12월 1일부터 여행 파트너국(최초 출발지) 관광객 입국이 시작되었다. 입국자는 3일간 격리된다.
- 여행 파트너국 관광객은 무비자 입국이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승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여행 파트너국 최초 출발자는 3일, 기타국 출발자는 14일 격리.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37달러/MT	M.G.O	'21.12.8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1~0.5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4톤 정도이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하와이-아메리칸사모아간 운항편은 1월 6, 27일, 2월 17일, 3월 10, 31일로, 입국자는 지정 장소에서 7일간 의무 격리되며 사전에 Talofa pass에 등록해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격리 비용은 사모아 정부 전액 부담).
- 사모아-아메리칸사모아 간 항공편은 매주 2차례 운항 예정이다. 입국자는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 격리는 없다.
- 스타키스트 사모아 참치 공장은 코로나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매일 2교대 생산가동에서 1교대 생산가동으로 운영 중이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92(gallon)	'21.12.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저층트롤 금지 요구 문제

- Deepwater Group은 저층트롤을 뉴질랜드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환경선발위원회에 제출했다.
- Deepwater Group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곳 중 하나이고, 91% 이상의 EEZ에서 한 번도 저층트롤 조업이 행해지지 않았고, 19개의 주 어종이 모두 MSC 인증을 받았으며, 뉴질랜드 수산업이 세계 상위 5%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뉴질랜드 진출 어업국 조업 동향

- 한국 법인 운영 트롤선 4척이 2016년 5월 1일 뉴질랜드 국적 취득 후 계속 조업 중이다.
- 뉴질랜드 현지 주 어종인 Hoki의 2021/22 시즌 TAC 5,000톤 감소가 결정되었다.
- Hoki는 혼획되는 경우가 많은 어종으로, 만일 Hoki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는데도 혼획된다면 정부가 임의로 높게 책정한 추정가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타격이 크며, 이로 인해 연간 조업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다.
- 한국 선단 주 어종인 오징어는 쿼터가 충분하나, 오징어 어기가 끝나면 Hoki 쿼터 부족으로 인해 연간 조업 타격이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오징어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 코로나 관련 동향

- 기본적으로 외국인인 입국이 불허된다. 단 수산업계의 외국인 의존도 및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



해 2021/22 어기를 위해 외국인 선원 615명의 입국허가가 결정되었다.

- 2021년 9월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조업 중인 외국인 선원들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었다.

라. 항만 출입항 및 공항 출입국 동향

- 입국허가를 받아도 무조건 입국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항 입국은 격리시설 MIQ(Managed Isolation and Quarantine)에 입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 항만으로 입항하는 경우, 10일 이상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고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마.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900	Sea Jho Co LTD.
	2L	3,900	
	L	3,500	
	M	3,450	
	S	-	
HOKI	2L	2,450	
	L	2,450	
	M	2,250	
	S	2,150	

바.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892/MT LMFO \$747/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12.8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 연간 어류 수입 1억 5,000만 달러 지출

- 가나는 현재 매년 현지 어류 수요의 60%를 수입하고 있으며, 실제 수입액은 1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가나는 연간 100만 톤의 어류를 소비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연간 40만톤 정도이다.
- 현재 가나는 1인당 어류 소비량은 연간 21~27kg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가나참치협회(GTA)에 따르면 국내 어류 생산량 부족은 가나의 어족 자원이 고갈된 결과이며 이로 인해 과도한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졌다.
- 가나수산협회(NAFAG)의 Simon Agah 부회장은 권한대행은 선박 연료 가격상승으로 인해 조업 경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참치 어선이 여럿 폐선했고, 그 결과 이전에 20여 척에 달했던 가다랑어 채낚기 선단이 현재 5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 연안 어촌 해일, 이재민 4,000여명 발생

- 가나 해안에서 최근 발생한 해일로 인해 Volta 지역 주택 500여채가 휩쓸려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 최근 COP26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은 아프리카의 극빈층 1억 명 이상이 기후변화 가속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 덴마크 정부, 가나 해양 분야 지원 약속

- 가나를 방문한 덴마크 수상 Mette Frederiksen은 가나 해양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Frederiksen 수상은 기후 변화로 인해 빈곤을 상승과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프리카와 유럽 모두의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Frederiksen 수상은 또한 기니만의 급진주의와 해적 문제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합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00	
	10kg 하	1,440	
가다랑어	3.4kg 상	1,300	
	1.8kg 상	1,250	
	1.5kg 상	1,100	
	1.5kg 하	95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730달러/kl	M.G.O	'21.11.30	
항만급유	750달러/kl	M.G.O	'21.11.30	

- 또한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 11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향후 추가지정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 보츠와나, 홍콩,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타니, 레소토 등)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사망 현황
 - 누적 확진자 : 4,257,685명 (+196명)
 - 회복 : 4,106,292명 (+298명)
 - 사망 : 143,867명 (+4명)
- 백신 접종 현황
 - 총 접종대상자 : 208,265,720명
 - 1차 접종 : 142,502,488명 (68.42%)
 - 2차 접종 : 99,021,290명 (47.55%)
 - 3차 접종 : 1,245,099명
 - 전국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감소 추세
 - 한인동포 환자는 보고된 사항 없음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추가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내·외국인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PNA 선망선 어획량 급감 후 소폭 증가

파푸아뉴기니 수역 어획량 300% 증가

PNA 수역과 공해에서 10월 선망선 어획량은 9만 2,684톤으로 지난달 대비 약 57% 증가했지만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6만 2,028톤으로 지난달 3만 8,074톤 대비 6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10월 파푸아뉴기니 수역 선망선 어획량은 3만 8,457톤으로 9월 대비 300% 증가했으며, 전체 어획량의 41%를 차지했다. 조업일수는 2배 증가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반면, 키리바시에서는 줄고, 나우루에서는 거의 없었다.

10월 선망선 어획량은 모든 종에서 약간 증가했다. 10월 가다랑어 1일 어획량은 약 3톤으로 지난달 대비 증가했지만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 6월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선망선 1일 평균 어획량도 2019년 6월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소형 참치 어획량이 증가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FAD 금지 기간 이후 FAD 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

인다. 9kg 미만 황다랑어 1일 어획량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형 눈다랑어도 더 많이 어획되었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1일 4톤으로 올해 두 번째로 좋았지만 9월 어획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획량 증가에 따라 PNA 항구에서 참치 전재량은 4만 3,497톤으로 지난달 대비 12%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전재량을 기록한 항구는 파푸아뉴기니 항구(모르즈비, 마당, 라바울)이다.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 방콕으로 가는 운반선에 전재된 참치량은 2만 3,500톤으로 지난달 대비 74% 증가했다. 마이크로네시아 항구 전재량은 1만 3,000톤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어획량 증가로 인해 약간의 공급 부족 완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예년과 같이 어가를 낮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5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만타 가격 추월해

2020년 8월 이후 처음

아시아의 한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방콕 11월 가다랑어 거래가격은 톤당 1,600~1,650 달러, 만타에서는 톤당 1,600 달러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방콕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만타의 공급 상황은 좋은 편이다.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가격은 지난 몇 년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 어업 노력 감소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월 가다랑어 가격 1,600 달러는 10월말

1,325 달러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이다.

만타에서는 제2차 금어기(veda)로 인해 선단의 절반가량이 출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600 달러에 머물렀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 연말에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800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7일, Atuna, 11월 18, 19일자



WCPFC 연례회의, 어획 전략 합의 없이 종료 MSC 인증에 영향 예상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2021년 연례회의는 참치 어종에 대한 어획 전략(harvest strategies)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이는 향후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중서부태평양에 서식하는 주요 상업 참치 4개종 모두의 자원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녹색 등급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가다랑어와 남방 날개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MPs)는 2022년말에 검토 및 채택될 예정이다.

호주가 제출한 어획 전략에 대한 새로운 작업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채택되었다. 이 작업 계획에 따르면, WCPFC와 과학위원회가 내년에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목표 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TRP)에 대해 합의하여 잠재적 관리절차에 대한 제안을 2022년에 내놓을 예정이다.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MPs는 2024년에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WCPFC에 속한 모든 당사자가 관리조치의 이행 및 준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인 이행감시계획(compliance monitoring scheme, CMS)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술위원회가 감사 포인트와 위험 기반 평가 체계를 내년에 살펴보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위원회는 2023년 이행감시보고서(CMR)에 사용하기 위해 2022년에 이 체계를 채택할 예정이다.

선원 노동 기준도 올해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아직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는 내년에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 개최 이전에 NGO와 일부 기업들은 보존조치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태평양수산위원회

(FFA) 17개 회원국은 11월 29일 WCPFC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이전의 조치와 새로운 조치 사이의 변경에 있어 '신중한 접근'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FFA의 Pene Baleinabuli 의장은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자원이 건강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는 것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소매업체, 참치 브랜드, 어업회사 등 총 112개 기업은 10월 6일, WCPFC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서부태평양 어업에 대한 MSC 인증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참치 자원의 어획 전략 개발 조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 서한은 글로벌 참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NGO, 개인, 기타 조직 등이 모여서 구성된 조직, NGO Tuna Forum이 작성했다. 이 조직의 회원으로는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퓨 자선신탁 등이 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회사는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테스코, Aldi, Lidl, Target, The Kroger Company와 같은 소매업체를 비롯해 트라이마린, 타이유니온, 스타키스트, FCF, Salica, Grupo Calvo, Frinsa, RD Foods, Jealsa와 같은 어업회사·가공업체도 있었다.

서한에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목표 기준점 채택, 가다랑어 및 날개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 후보 목록과 같은 올해 달성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어획전략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과학자/관리자 대화 그룹을 구성하고 2022년에 첫 번째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1일자, 12월 7일, SeafoodSource, 11월 29일자



키리바시, 피닉스제도 보호구역 참치 어업 개방

입어허가 수입 손실 원인...중국 영향 비판도

키리바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인 피닉스제도 보호수역(PIPA) 폐쇄를 해제하고 참치 어업을 허용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키리바시 정부는 수년간 이어진 어업허가 수입 손실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결정이 보존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PIPA는 2006년 처음 설정되었으나 상업적 어업 폐쇄는 2015년부터 실시되었다. PIPA는 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40만 8,250km²로 키리바시 EEZ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PIPA는 여러 참치 종의 주요 산란 장소이기도 하다.

키리바시 외교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PIPA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PIPA 트러스트를 통한 '역입어허가(reversed fishing license, PIPA 트러스트에 기부금이 모금될수록 상업적 어업을 더 많이 금지하는 제도) 체계가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한 것이었다.

키리바시 정부는 PIPA 트러스트로 현재까지 약 700만 달러가 모금되어, 보호구역 운영·관리 지원으로는 충분하나, 입어허가 손실을 보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태평양수산위원회(FFA) 등의 전문 자문단 조사에 따르면, 키리바시 EEZ 조업일수는 2015년 이후 8%(720일) 감소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2019년 대만 대신 중국과 수교를 개시한 키리바시의 결정, 중국 선단의 키리바시 EEZ 접근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리바시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Richard Jeo 국제보호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아태지역 담당 부사장은 이번 결정이 키리바시 의회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 부사장은 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지정학적 문제가 있으며, 키리바시는 주권국으로서 PIPA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6일자

PNG-FIA 어업, 눈다랑어 MSC 인증 획득

가다랑어, 황다랑어에 이어 3종으로 확대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FIA)는 눈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FIA는 지난 2020년 5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MSC 인증을 승인받은 바 있다.

PNG-FIA 어업은 파푸아뉴기니 EEZ 및 군도 구역 내 북부 연안에서 참치 스쿨 조업을 한다. 이들

은 고정형·부유형 FAD도 사용한다. MSC 인증이 적용되는 선박 척수는 84척이며, PNG, 필리핀,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대만 등의 국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9일자



태국 3분기 가다랑어 수입 누계, 5년 최고치

7~9월 수입량 지난해 대비 감소

태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1년 3분기(9월 말)까지 태국의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은 53만 9,9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태국 참치캔 생산량이 1/4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공업자들은 3분기 말까지 재고를 과도하게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3분기로 한정하면 원어 수입량은 23만 9,510톤으로 지난해 대비 8% 감소했다. 이는 2분기 수입량이 많았던(지난해 대비 140% 증가) 여파로 보여진다.

태국 가공업자들이 지불한 냉동 참치 전체 평균 가격은 1톤당 1,497 달러로, 지난해 대비 4% 하락했다. 방콕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가다랑어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3분기 대비 4% 상승했다.

올해 태국의 가다랑어 수입량은 2017년 이후 최고치인 42만 2,206톤으로 2020년 대비 27% 많다. 1분

기 12만 1,816톤, 2분기 15만 2,301톤, 3분기 14만 8,089톤이 수입되었다. 황다랑어 수입량은 6만 8,794톤, 날개다랑어 수입량은 3만 2,398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눈다랑어 수입량은 1만 6,457톤으로 다소 증가했다.

태국의 올해 3분기 대만산 참치 누적 수입량은 10만 5,91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마이크로네시아산 수입량은 9만 309톤으로 지난해 수입량인 3만 8,150톤보다 크게 증가했다. 나우루산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5만 4,906톤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주요 원산지들의 태국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의 수출량은 2019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미국,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세이셸 등의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0일자

Pacificall, GSA 인증 취득 추진

인증 취득 시 중서부태평양 최대 GSA 인증 선단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시장개발기업인 Pacificall은 모든 어업에 대한 세계수산물연맹(Global Seafood Alliance, 이하 GSA) 인증 취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7,000명 이상의 선원과 약 250척의 선망선을 보유한 중서부태평양 최대 GSA 인증 선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acificall과 GSA의 협력 목표는 선상에서의 공정한 근무와 생활환경 보증을 제공하는 인증인 책임어선기준(RFVS)을 이행하는 것이다. Pacificall

의 선단은 50여 개 기업 산하 10개국 이상의 국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GSA 인증은 자연산 수산물에 윤리적으로 어획되고 가공되었음을 보증하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RD Fishing사가 해당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은 향후 2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Pacificall과 GSA는 선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8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930엔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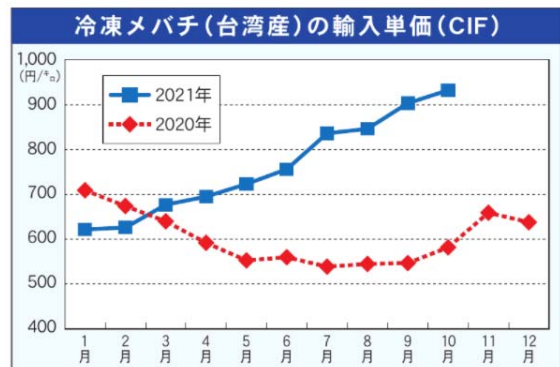
2개월 연속 수입 3,000톤 미만

일본 재무성 통관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참치류 10월 수입실적은 선어냉장 471톤(지난해 동기 대비 40% 감소), 8억 7,700만 1,768 엔(22% 감소), 냉동 1만 1,768톤(28% 감소), 103억 8,800만 엔(8% 증가), 가공품 4,190톤(4% 증가), 25억 5,900만 엔(6%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카미, 내장 제거) 반입량은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10월 수입량은 9월 대비 168톤 감소한 2,605톤(지난해 동월 대비 54% 감소)으로, 2개월 연속 3,000톤 미만을 기록했다. 주력인 대만산 수입량은 1,602톤(60% 감소)으로 9월 대비 93톤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10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의 kg당 단가는 932 엔

으로 9월 대비 29 엔 상승했다. 950 엔대에 근접했으며, 곧 1,000엔을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3일자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1,100 엔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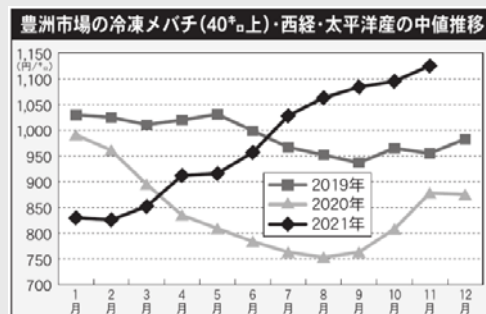
11월 상장량 총 1만 1,210마리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 11월 냉동 눈다랑어(40kg 이상) 상장 수는 총 1만 1,210마리(지난해 동월 대비 21% 감소)로, 10월 대비 8% 증가했다.

연말 대목과 요식업 이용자 수가 회복된 것이 상장량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고량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 연말 판매량 여하에 따라 연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냉동 눈다랑어 중간가격은 kg당 1,128 엔(지난해 동월 대비 28% 상승)이며, 10월 대비 30엔(3%) 상승했다. 연말 대목에 판매될 냉동 눈다랑어 재고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최소 3월까지 아카미

(붉은살) 어획물을 중심으로 한 외국 어선의 일본 입항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9일자



日 재무성, 10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지난해 동기 대비 냉동 수입량 28% 감소, 수입 금액 8% 증가

2021년 1~10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2021년 1~10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49	9	-	368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307	1185	1699	5763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	1	19	2074
	기타	81	6	21	52	9	36	290	938	402	105	1940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2295	1597	1824	10147
황다 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455	267	318	3593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770	186	420	3841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1143	1253	742	12367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22	18	3	899
	인도네시아	-	21	33	7	15	-	-	-	-	-	76
	미국	-	17	-	12	-	31	3	-	-	-	63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78	133	70	1476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13	65	25	376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248	58	124	26	1088
	마셜제도	104	-	54	-	25	-	257	189	830	303	1762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529	701	911	9269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3357	3577	2816	34808
눈다 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10	73	36	1618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1216	632	469	6667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903	1509	1602	20240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150	297	247	4700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48	117	149	174	2432
	기타	145	63	59	99	22	95	113	63	114	77	850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3560	2773	2605	36505
남방 참다 랑어	한국	354	-	-	-	-	40	-	-	-	-	394
	대만	56	32	50	23	2	5	1	24	51	143	387
	호주	-	-	-	-	-	-	715	1900	2863	452	5930
	소계	410	32	50	23	2	45	716	1924	2914	595	6711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3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51 달러 기록

어획 부진으로 인해 가격 상승

현재 세이셸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351 달러로, 10월 말 대비 14% 상승했다.

방콕 가격인 1,600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가격이지만 선주들은 세이셸에서 방콕까지 운송 시 톤당 최소 250 달러의 운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에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선택이 아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륙량이 많지 않아 원료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가동 능력의 70%만을 가동 중인 가공공장들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부족과 높은 운임, 모리셔스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조업시즌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2022년 1월 중순이 되어야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그러나 일부 선주들은 2022년 IOTC 황다랑어 쿼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출항 시점을 올해 12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어획량이 적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연료 비용을 부담할 수준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프랑스, 스페인 선원들은 크리스마스와 1월 6일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선망선단은 아직 쿼터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프리스쿨 조업으로 대형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쿼터 소진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세이셸 10kg 이상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363 달러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3일자

IOTC 특별 회의, 신규 FAD 조치 없이 종료

2022년 연례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FAD 사용 제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인도양참치 위원회(IOTC) 특별 회의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해당 회의는 올해 6월 IOTC 연례회의에서 표결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던 'FAD 관리에 대한 IOTC 결의안 19/02'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은 FAD 배치, 과학에 근거한 FAD 상한선, FAD 표시 지침, FAD 추적·복구 정책 개발,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 FAD 사용 권장, 100% 생분해성 FAD 전환 타임라

인 구축 등에 대한 진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11월 특별 회의에서는 FAD 관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Susan Jackson ISSF 회장은 IOTC가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2022년까지 결정을 늦추게 된 것이 실망스러우나, 2022년 연례회의까지 모든 IOTC 위원들이 협조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일자



Princes 모리셔스 공장, 바이오가스 프로젝트 추진

연간 8,650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일본 미쓰비시 산하의 수산 기업 Princes 그룹은 신생 바이오공장 벤처 Energie des Mascareignes (EDM)와 협력해 모리셔스 참치 가공 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8,650톤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Princes에 따르면 이는 Princes 참치 모리셔스 (PTM) 최대 제조 현장 배출량의 80%에 해당한다.

EDM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Green Create사와 IBL Energy사가 합작한 폐기물 가치전환 벤처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Princes는 EDM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 PTM 시설에서 배출된 반고형 폐기물 (semi-solid waste)을 폐수와 함께 혐기성 소화 (anaerobic digestion,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분해시켜 메탄으로 전환시키는 기법) 기술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로 변환할 계획이다.

PTM의 Riche Terre 현장에서는 바이오가스가 증류를 대체해 증기 조리에 필요한 동력 100%를 공급하게 된다. 기술이 도입되면 현재 매립지로 보내지는 어류 폐기물은 사라지게 된다.

2개 PMT 시설의 폐수에서 질소·인산염 제거를 통해 생성된 추가적 부산물은 바이오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출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거나 발생하는 연간 약 80톤의 화학물질도 이번 사업을 통해 근절된다.

신규 바이오공장은 2022년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PTM의 참치 머리, 내장, 껍질, 뼈 등의 고형 폐기물은 IBL의 자회사인 해양생명공학제품(MBP)사의 인근 공장에서 어분, 어유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7일자

모리셔스 참치업계, 지속가능 참치 협회 출범

모리셔스 이해관계 대변 목적

Princes Tuna Mauritius사와 IBL Seafood사는 지난 11월 17일 지속가능참치협회(STA) 출범을 발표했다. 모리셔스 참치 가공업계 및 이들의 가치사슬 상에 있는 기업은 인도양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알리길 원한다.

Cougen Purseramen STA 회장 겸 IBL Seafood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성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우리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STA의 초점은 인도양과 모리셔스 수역의 참치 자원이며, 이는 세계참치동맹(GTA),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과 같은 타 NGO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다. Princes 그룹은 두 NGO의 회원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일자



에콰도르, 중국산 로인 수입 비중 증가

가격 경쟁력, EU 외 시장개척 이점 등 작용

에콰도르 참치캔 가공업자들이 중국에서 냉동 참치 자숙 로인 대량 수입을 시작했다. 자숙 로인은 특히 올해에 거래량이 급증해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가격은 최저치에 도달했다.

에콰도르는 올해 3분기 동안 중국산 자숙 로인을 2,617톤 수입했다. 지난해 3분기 349톤 대비 크게 증가했다.

에콰도르의 주 수출 상대국은 유럽 국가이다. EU와 체결한 무관세 협정으로 인해 에콰도르, EU, 또는 EU 협정 당사국 국적선에서 어획한 참치로 생산된 제품은 EU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에콰도르 선단의 참치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체 공급원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산 로인 구매 증가는 주로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 EU 외 시장 유통 제품을 위한 것이다. 중국산 로인 구매는 EU 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산 로인의 올해 3분기 평균 FOB 가격은 2,825 달러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동안 에콰도르는 스페인에 2만 4,623톤의 로인을 수출했으며 가격은 톤당 4,725 달러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6일자

오만 기업, 참치 선망선 2척 신조 계약 체결

2023년 인도 예정

오만 Al Wusta Fisheries Industries사는 스페인 조선소 Zamakona와 선망선 2척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 선망선은 2023년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망선 2척은 전장 84.7미터이며, 1,800톤의 어획물을 16개 탱크에 나눠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중 탱크 2개는 초저온 유지에 사용된다. Zamakona 조선소에 따르면 Al Wusta사는 해당 선박 건조에 7,926만 달러를 투자했다.

Zamakona 조선소에 따르면 이미 건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11월 15일 첫 번째 선박의 용골 거치

가 이루어졌다.

Al Wusta사는 정부 소유 국부펀드인 오만투자청 산하 오만수산개발(FDO)의 자회사 중 하나이다. 인도양과 오만 연안 수역에서 어업 자원을 개발하고 Oman Pelagic이라는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당 기업은 1,500톤까지 수용 가능한 93m급 전갱이 냉동트롤선을 보유하고 있다. 2척의 신조 선망선은 주로 인도양에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조업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2일자



캔 비용 부담, 역대 최고 수준

참치캔 가격 인상 불가피한 상황

철강 제조 주요 원료인 철광석 가격은 2018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 오다 2021년 상반기 수요 급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 다렌 상품거래소의 중국 인도용 철광석 현물가격은 톤당 105 달러이다. 한편,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3% 감소한 7,158만톤을 기록했다. 유럽 철강업체들도 고비용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철강 생산 비용 상승과 생산량 감소는 참치캔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 Hai Vuong 그룹에 따르면 캔 비용은 지난 1년간 48캔 1상자당 1.5 달러가 올랐다. 캔 1개당 0.03 달러 상승한 셈이다.

또한 가공업체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캔과 강판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태국, 스페인, 파푸아뉴기니(PNG) 등지의 공장들은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필리핀 Philbest사와 PNG의 RD TUNA사 최고운영책임자(COO) Roland Joseph Salangsang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캔 가격이 30% 상승했다.

아울러, Salangsang은 운임이 현재 최고 수준이며,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1상자당 6 달러(캔당 0.13 달러), 즉 CFR 가격의 13%가 인상된 셈이라고 말했다.

Hai Vuong 그룹은 지난 1년간 식물성 식용유 가격이 1상자당 1.30 달러(캔당 약 27 센트), 운임의 경우 2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최종 공급망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2022년 초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Salangsang은 판매량 영향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실수요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2일자

Friend of the Sea, 어선 인증에 위성 모니터링 요구

인증 선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구현

The Friend of the Sea(이하 FOS)의 지속가능 인증 프로그램은 인증 선단에 대해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위성 모니터링을 요구사항으로 적용한다.

FOS 설립자이자 이사인 Paolo Bray는 새로운 해양위성모니터링프로그램(SMP)을 통해 약 2,000척의 FOS 인증 선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어선이 조업 시즌, 허가된 조업 구역, 해상 전제, 사회적 책임, 기타 인증 의무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SMP는 선상 CCTV, 드론, 그 외 발표되지 않은 “증강 현실” 감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Bray에 따르면 FOS의 목표는 2023년 말까지 인증을 승인한 모든 산업형 선박에 CCTV를 설치해 FOS의 부수어획, 어법, 멸종위기 어종, 어류 복지, 사회적 책임 등에 관련된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2월 7일자



대만 참치 업계, CCTV·블록체인 도입 추진

노동 학대 근절 통해 이미지 개선 도모

대만참치협회(TTA)가 노동 학대 근절을 위해 대만 국립중정대학(國立中正大學)과 협력하여 어선 탑재 영상 감시 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TTA는 육상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으로 어획 데이터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술 접목 해상 인권 보호 및 지속가능 수산 개발 실현: 원양어업에서 인본주의적인 양질의 노동 정책 수립”이라는 3년 실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TTA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대만 과학기술부로부터 자금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이들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진보된 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TTA 회원사로는 Chun-I, Jinn Chun, Hong Yuan 등 저명한 참치 공급업체들이 있다.

프로젝트 리더 Tony Lin에 따르면 프로젝트 팀은 현재까지 총 5척의 어선에 CCTV를 설치했으며 이들은 모두 출항했다. 앞으로 4척의 어선에 CCTV가 추

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Lin은 6개월 후 어선이 귀항하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n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 감시하는 것과 CCTV 모니터, “인체 자세 추정”, “인체 행동 분석 및 예측” 등의 기술을 사용해 노동 학대 행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상 작업 환경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돼 이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데이터를 신뢰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CCTV 시스템은 육상과 실시간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예정이다. Lin의 설명에 따르면 위성 통신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실험은 어선에 CCTV를 설치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과 휴게 기록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 텍스트 형식으로 자동 변환되어 매일 대만으로 전송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1월 22일자

대만 FCF, 글로벌 이력추적 프로젝트 참여

지난해 3월 도입된 GDST 표준 구현 가능

대만 참치 대기업 FCF가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GDST) 정식 참여를 발표했다.

FCF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에 도입된 GDST의 첫 번째 글로벌 표준과 디지털 이력추적을 위한 핵심 데이터 요소를 완벽히 구현해, 고객

에게 FCF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는 확고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FCF는 그린피스로부터 투명성, 선원 보호, 선박 안전 등의 부족을 계속해서 지적받아 왔다. GDST 가입은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일자



ICCAT, 내년 눈다랑어 TAC 6만 2,000톤 설정 눈다랑어 완화적 조치, 다른 참치종 및 청상아리 보존조치 진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 회의가 지난 23일, 1주일 이상 계속된 논의 끝에 종료되었다.

ICCAT는 현재 6만 1,500톤인 눈다랑어 선망선 TAC를 2022년 6만 2,000톤으로 소폭 확대했다.

FAD 금지 기간은 3개월에서 72일로 단축되었다. 황다랑어 TAC는 2022년 11만톤으로 유지되었다.

ICCAT는 최초로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어획 전략을 채택했다. TAC는 2022~2023년 동안 3만 7,801톤이다. ICCAT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2036년까지 15개년 지중해 날개다랑어 회복 계획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종의 쿼터는 2,500톤으로 설정되었다.

대서양 참다랑어 TAC는 3만 6,000톤으로 유지되며 2023년 TAC는 내년 ICCAT 연례 회의에서 정해

질 예정이다. 동부지중해 참다랑어 자원에 대한 신규 평가가 내년에 수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적 조연을 기반으로 쿼터가 정해질 예정이다.

ICCAT는 또한 4년간의 논의 끝에 북대서양 청상아리 복원 계획에 합의했다. 총 어업 사망률은 새로운 과학적 조연이 제공될 때까지 최대 250톤으로 설정되었다. ICCAT는 해당 종의 총 사망률을 지속가능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신규 조치를 통해 선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어업자들은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북대서양에서 잡힌 청상아리의 선상 보관, 전재, 거래가 금지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4일자

美 참치 상온 제품, 3분기 누적 판매량 19억 달러

2020년 대비 14% 감소, 2019년 대비 8% 증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IRI와 210 Analytics은 2021년 3분기 누적 냉동, 신선, 상온보관 참치-수산물 제품의 매출액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온 수산물 부문(통조림, 파우치 포함)의 2021년 매출액은 14%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8%나 높은 수치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참치캔, 참치 파우치 제품은 올해 10월 매출액은 1억 7,600만 달러로, 2020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으나 2019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미국 소

비자들이 계속해서 참치 제품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냉동 수산물 시장 규모는 2020년 대비 2% 성장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신선 수산물 시장 규모는 3.9% 성장한 54억 달러이다.

210 Analytics 책임자이자 조사 작성자인 Anne-Marie Roerink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식을 가지 있게 여기는 추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7일자



동부태평양 3분기 참치 누적 어획량 증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라니냐 원인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누적 참치 어획량은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올해 3분기까지 참치 어획량은 52만 2,503톤으로 지난해 대비 8% 많다. 50만톤을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간 세 번째이다.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보다 많은 어획량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황다랑어 어획량은 21만 4,895톤으로, 지난해 대비 20%나 증가했다. 어획량은 매 분기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멕시코 선단 1만 2,000톤, 에콰도르 선단 1만톤, 파나마 선단 8,000톤 더 많이 어획했다.

가다랑어 어획량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 지난해 대비 약 10% 적었으나 이후 회복되어 3분기 말에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수의 소식통들은 지난 수개월 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 상황이 매우 나빴다고 말해 왔으나, IATTC 자료에는 7·8·9월 어획량이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어기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 동안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6만 3,440톤을 기록했다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수온 저하는 7월 이후 동부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는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획 증가도 라니냐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12월부터는 라니냐 현상이 동부태평양 전역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2일자

美 3분기 참치캔 수입량,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

수입량 약 9만톤, 톤당 4,574 달러

2021년 3분기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9만 85톤으로 지난해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폐쇄조치로 인해 사재기 수요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1분기, 2분기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미국 내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분기 참치캔 톤당 평균 FOB 가격은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인 4,574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공급국의 대미국 참치캔 공급량이 감소했다. 미국의 태국산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5만 4,046톤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톤당 평균 FOB 가격은 4,546달러로 지난해 대비 8% 상승했다.

가장 저렴하게 수입된 참치캔은 멕시코산으로, FOB 가격으로 톤당 평균 3,315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산 수입량은 1만 738톤으로 2020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2019년 대비 5,000톤 증가했다. 멕시코산은 해상운임 폭등으로 인해 육로 운송 장점으로 미국 참치캔 수입 비중 2위를 차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1일자



EU 3분기 참치캔 누적 수입 40만 5,845톤

지난해와 거의 동일...수요 정상화 조짐

2021년 1~3분기 동안 EU가 수입한 참치캔은 총 40만 5,848톤으로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며 지난 5년간 최대였던 2019년 1~3분기 수입량보다 1만톤 적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팬데믹으로 인한 참치캔 사재기 수요가 발생한 후, 3분기에 급감했다. 올해는 2분기의 부진 이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고, 누적 수입량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참치캔 평균 CFR 가격은 3년간 최저 수준인 톤당 4,183 유로로 지난해 대비 5% 하락했다. 비 EU 공급자와 EU 공급자 모두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

에콰도르에서 EU 국가로 수출한 참치캔의 양은 6만 3,125톤으로 지난해 대비 약 15%, 2019년 대비 약 1만 5,000톤 감소했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에서 타 EU 국가로 수출한 양도 소폭 감소했다. 포르투갈

의 수출량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세이셸에 위치한 타이유니온 산하 IOT 가공공장의 EU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에는 지난 3년간 최고치인 4,927톤을 기록했다. PNG의 EU 참치캔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최고치인 2만 4,464톤을 기록했다.

소규모 공급국들이 EU에 참치캔을 수출하는 양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15%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했다. 베트남만이 지난해 발효된 EU 관세 협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4% 더 많은 물량을 수출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참치캔 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높은 비용 문제가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9일자

프랑스 참치캔 수입량 유럽 내 최고

스페인 수입량은 감소

EU의 올해 3분기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EU 내 무역 역학 관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프랑스가 최대 참치캔 수입국가가 된 반면 독일과 포르투갈의 수입량은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가장 많은 참치캔을 수입했던 독일의 올해 3분기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으며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 참치캔 수입량은 올해 3분기 8만 3,112톤을 기록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의 주요 공급국인 세이셸과 스페인의 공급량은 약간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참치캔이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유입되고 있다. 올해는 2019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스페인의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3% 증가했지만 2019년 대비 약 2만톤 감소했다. 에콰도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에콰도르산 수입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스페인 시장에서 자국 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30일자



英 참치 소매가격, 유럽에서 최저 수준

참치 소매업체 가격 경쟁 심화 원인

영국 소매업체가 독일 할인마트 체인 Aldi의 확장을 막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인 결과, 영국의 참치캔 판매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낮아졌다.

영국 소매시장 선두주자인 Tesco는 자사 브랜드인 Stockwell & co.의 브라인(염분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 참치캔(순중량 145g, 유분, 수분 제외 102g)을 개당 0.59 파운드(0.78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비교 대상인 순중량 145g의 Princes 브라인 참치캔은 개당 1.25 파운드(1.66 달러)로 Tesco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Stockwell & co.의 참치캔 가격은 심지어 애완동물용 참치 사료(85g, 0.60 파운드)보다도 저렴하다.

Tesco는 2020년 3월부터 'Aldi 가격 비교(Aldi Price Match)'를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Aldi와 비교한 자사의 가격 경쟁력을 홍보하고 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마켓 회사인 Sainsbury 또한 2021년 2월부터 자체적인 'Aldi 가격 비교' 캠페인을 진행 중

이다. Sainsbury는 순중량 145g 브라인 참치캔 4개 팩을 2.39 파운드(3.18 달러, 개당 0.78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광고에서 Ald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타 영국 소매업체도 가격 경쟁에 합류했다. 슈퍼마켓 체인 ASDA는 순중량 145g의 해바라기유 가다랑어 참치캔 4팩을 2.55 파운드(3.39달러, 개당 0.84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Aldi의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은 7.9%로 지난해 8%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Tesco는 26.9%에서 27.6%로, Sainsbury는 14.9%에서 15.2%로 상승했다. 손해를 감수한 이러한 경쟁이 '제 살 깎기' 식 소모적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할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마진을 갖춘 타 제품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유효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6일자

참치, 유럽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2019년 기준, 연어, 대구 뒤이어

유럽수산물시장관측소(EUMOFA)는 최근 새로운 버전의 EU 수산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유럽인의 1인당 연간 참치 평균 소비량은 3.1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산물 중 가장 많았다. 2018년 대비 0.5kg 증가했으며 10년 전에 비해 33% 증가했다.

2019년 1인당 참치 소비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참치캔 소비 증가이다. 가다랑어 참치캔 소비량은 1.81kg, 황다랑어 참치캔 소비량은 790g에 달했다.

반면, 2019년 1인당 수산물 총소비량은 23.97kg으로 2018년 대비 2% 감소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순위는 참치에 이어 연어(2.36kg, 5%↑), 대구(2.11, 1%↓), 명태(1.67, 0.4%↓), 새우(1.47, 7%↓), 홍합(1.23, 2%↑), 민대구(1.02, 2%↑), 청어(0.98, 17%↓), 오징어(0.62, 6%↓), 연육(0.59, 0.2%↓), 정어리(0.58, 1%↑), 고등어(0.53, 12%↓), 송어(0.41, 2%↓)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4일자



EU 참치 자숙로인 3분기 수입 누계 14만톤

지난 5년간 최다 수준

EU의 2021년 3분기 냉동 참치 자숙로인 수입 누계는 14만 5,451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000톤 증가했다. EU의 올해 로인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평균 CFR 가격은 톤당 4,352 유로(약 4,913 달러)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가공업자들에게 수입 로인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에콰도르는 EU 로인 최다 수출국의 위치를 되찾았다. 에콰도르는 EU에 2020년 대비 8% 많은 3만 8,551톤의 로인을 수출했다.

한편 지난해 최다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26% 감소했다. 중국산 로인의 평균 CFR 가격은 톤당 3,256 유로로 전 수출국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중국이 3분기 동안 EU에 수출한 로인은 약 3,000톤으로, 지난 수 개월 대비 확연하게 감소했다.

스페인에서 EU 국가에 수출한 로인의 평균 가격은 수출국 중 가장 비싼 톤당 5,868 유로였다. 하지만 수출량은 3,254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나 급증했다.

필리핀의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92%나 성장한 8,030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저렴한 CFR 가격(톤당 4,184 유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테말라의 EU 수출도 지난해 대비 약 50% 증가했다. 과테말라에 Jealsa사 산하 로인 공장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한 로인이 주로 유럽에 위치한 Jealsa사 참치캔 가공 공장으로 운송된다.

전반적으로 유럽 가공업자들은 지난해부터 로인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이는 가공업자들이 참치 클리닝 작업(가공공장에서 삶은 뒤 살 발라내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저렴한 중남미, 아시아 국가의 로인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6일자

식물 기반 참치, 타임지 2021년 최고 발명품 선정

美 Kuleana社 생산...초밥, 참치포케 사용 가능

타임지가 Kuleana사에서 만든 식물 기반 참치 대체식품을 '2021년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타임지는 해당 제품이 초밥, 참치포케 등 전형적인 참치 요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또한 철분,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등 실제 참치와 성분은 유사하면서도 미세 플라스틱, 수은, 높은 콜레스테롤

등이 없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타임지는 신선 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참치 대체식품이 산업형 수산업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Kuleana사는 조류(藻類), 누룩, 무, 대나무, 감자 등으로 참치 대체 식품을 생산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2일자



대서양 소규모 어업자, 산업형 어업에 ‘오염자 부담’ 원해 환경 부담 큰 어업에 비용 부담 요구

대서양 지역 소규모 어업자들이 EU에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해 대서양 산업형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원칙에 근거해 FAD를 투기하거나 유실하는 선단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국제채낚기재단(IPNLF)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IPNLF는 산업형 어업의 효율성, 수용능력 증가로 인해 남획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조레스, 카나리아제도, 마테이라 등지에서 채낚기와 손낚시 등의 방식으로 어획해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어업자들은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수산 단체 등을 대변하는 20여 개의 관련 단체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환경해양수산위원 Virginijus Sinkevičius 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눈다랑어 자원을 재건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 부족과 대서양 소규모 어업자들이 처한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서 제기된 또 다른 주 논점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오염자 부담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건강,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IPNLF는 산업형 어업으로 인해 참치 남획이 발생하고 있고 거북, 상어와 같은 취약종을 위협하며, 해양 쓰레기나 투기·유실·폐기 어구(ALDFG)로 인해 해양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IPNLF는 또한 EC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약속했으며, FAD의 경우 ALDFG와 같은 플라스틱 오염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5일자

말레이시아 정부, 인도양 참치 어업 독려

2030년까지 IOTC 수역 74척 조업 목표

말레이시아 농림식품산업부(MAFI)가 인도양 참치 어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MAFI 장관 Ronaldo Kiandee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 가능한 허가가 아직 54개나 남아 있다고 밝히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입어 허가 신청을 독려했다.

2021년 10월 해당 수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은 참치 어선 19척과 운반선 1척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IOTC 수역에서 74척의 말레이시아 국적선이 조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Kiandee 장관은 또한 참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가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3일자



필리핀 기업, 참치 공급망 최초 BSP 인증 취득

필리핀 RD Fishing사, 선망선 최초 RFVS 인증

필리핀 기업 RD Fishing사의 참치 선망선 12척은 최근 '책임있는어선표준(Responsible Fishing Vessel Standard, RFVS)'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선망선이 되었다. 한편 RD Fishing사의 어획물을 가공하는 Philbest Canning사는 수산물가공표준(Seafood Processing Standards, SPS)을 취득해 최초로 '수산물우수관리(Best Seafoods Practices, BSP)' 인증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BSP는 자연산 수산물이 윤리적으로 어획되고 가공되었음을 보증하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다. '세계양식연맹(Global Aquaculture Alliance)'과 '세계수산물인증(Global Seafood Assurances)'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 '세계수산물연맹(Global Seafood Alliance, 이하 GSA)'에서 BSP를 체계화

했다. GSA의 RFVS는 선원 권리, 안전, 복지를 포함한 선박 관리와 안전 시스템 표준을 인증하는 어선 기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선박 인증 프로그램이다.

GSA는 RD Fishing사와 Philbest사의 인증을 발표하며 이들의 참치 어업이 세계지속가능수산물계획(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GSSI)이 인정하는 인증(이들의 경우 MSC)을 보유했기 때문에 BSP 표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D Fishing사와 Philbest사는 RD Corporation의 산하 기업이다. RD Corporation은 RD Fishing을 비롯해 13개 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1일자

인도네시아, 외국 참치 선단에 EEZ 개방 추진

연간 489만톤 규모...약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업 부문과 경제 발전을 위해 연간 77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상업적 어업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Sakti Wahyu Trenggono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1월 23일 『인도네시아 열도 내 4개 조업 구역에서 연간 489만톤 규모의 쿼터가

이번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EU, 중국, 일본, 대만 투자자들이 참치 등 인도네시아 원양 어업에 관심을 드러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6일자



태국 Asian Alliance, 공개상장 목표

모회사 Asian Sea,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태국 참치 가공업체인 Asian Alliance사는 2022년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공개 상장된 모기업 Asian Sea Corporation PLC사는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애완동물 사료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참치 분야 실적은 올해 들어 지지부진하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0% 성장했으며, 대부분의 실적은 냉동 수산물 및 애완 동물 식품 부문에서 발생했다. 참치 생산 부문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7% 감소한 1,772만 달러를 창출했으며, 회사 전체 매출의 약 8%를 차지했다. 참치 부문이 지난해 동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2%였다.

Asian Sea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11.1% 상승한 2,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기업의 애완동물 사료, 어분, 냉동 수산물, 양식 사료, 참

치 5개 부문의 총 생산량은 7만 79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참치 부문 생산량은 4,346톤으로 지난해 대비 32% 감소했다. 7~9월 동안 참치 부문 생산량은 단 983톤으로, 지난해 대비 56% 감소했다.

해당 기업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판매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애완동물 사료 생산에 투입한 것과 운임 인상으로 인한 컨테이너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Asian Sea PLC는 총 8억 1,408만 7,559주의 사외주를 발행했으며, 10인의 주요 대주주가 이 중 74.99%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11월 15일 기준 0.49 달러로 마감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5일자

타이유니온,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두 번째 발행

약 1억 8,200만 달러 확보

타이유니온이 기관 투자자에게 총 60억 바트(약 1억 8,240만 달러)에 달하는 dual-tranche(만기 또는 금리 조건이 다른 두 종류 채권 동시 발행) 무담보 지속가능성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 SLB)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채권 금리는 5년 만기 1억 3,700만 달러의 경우 2.27%, 10년 만기 4,570만 달러의 경우

3.36%로 책정되었다.

타이유니온은 지난 7월 태국에서 최초로 7년 만기 채권 SLB를 발행했다.

Thiraphong Chansiri 타이유니온 CEO는 해당 채권이 3억 400만 달러 이상, 제안 금액의 2배 이상일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11일자



47주차 오징어 가격

일렉스오징어 600g 초과 톤당 약 3,572 달러

일렉스오징어·살오징어 대형 가격이 소형 가격에 계속해서 근접하고 있다.

남서부 대서양에서 주로 어획되는 일렉스오징어 대형 원어(600g 초과) 냉동 블록의 중국 항구 가격은 톤당 2만 2,750 위안(약 3,572 달러)으로, 소형(100g 미만) 가격과 톤당 2,000 위안밖에 차이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격 추세는 일렉스오징어와 살오징어 대형의 어획량 호조가 원인이다. 팬데믹 이전 대형, 소형의 가격 차이는 2만 위안에 가까웠다.

동해와 동해 인근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의 경우도 비슷한 가격 수렴 현상을 보였다. 살오징어 대형과 소

형 가격 차이는 지난해 톤당 1만 5,000 위안이었으나 현재는 1,000 위안에 불과하다.

태평양 남동부에서 주로 어획되는 대왕오징어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 주 보고된 대왕오징어 소형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톤당 1만 위안 정도 하락했다.

중국 산둥성의 한 가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요는 매우 강하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다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 판매가격이 하락한 반면, 수출 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2일자

중국, 공해 오징어 어업에 어선 수 제한 설정

남동부태평양 400척 이하 등

중국 농업부가 내년 공해상 오징어 조업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업부는 지난 11월 초 지역 당국과 어업 회사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더 이상 공해 수역에 중국 국적의 오징어 어선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농업부는 공해 오징어 조업 수역을 북태평양, 동중부태평양, 남동부태평양, 남서부대서양, 인도양으로 구분했다.

각 조업 구역의 최대 어선 수는 북태평양 350척 이하, 중동부태평양 420척 이하, 남동부태평양 400척 이하, 남서부대서양 300척 이하, 인도양 250척 이하로 제한되며, 오징어 개체수와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 척수는 변경될 수 있다.

농업부는 또한 공해상 오징어 자원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예측 분석에 따른 어획 쿼터 대책 강구를 정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11일자



내년 러시아 명태 TAC, 올해 이어 미소진될 수도 중국 규제 내년에도 지속 예상

러시아 주요 어업업체의 임원 2명은 2022년에 계속되는 중국의 냉동수산물 수입규제와 글로벌 물류 혼란으로 명태 쿼터가 미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Okeanrybflot사의 Dmitry Gusev 영업 이사는 『현재 조업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 명태 쿼터가 약 15%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 다시 발생한다는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했다.

Gusev는 중국의 냉동수산물 수입규제가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2022년말까지 규제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장 공간과 컨테이너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임원은 『내년 명태 TAC 미소진량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공급 부족,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가 미국의 알래스카 명태 TAC 설정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러시아와 미국의 A시즌 명태에 대한 가격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알래스카 명태의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111만 1,000톤으로 제안했다. TAC는 법률상 ABC 이하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TAC는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명태 가공품 생산은 H&G는 감소, PBO(가시 제거) 및 민스는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필렛, 민스 생산량은 각각 8만 1,642톤, 1만 3,974톤으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6만 3,027톤, 9,715톤)을 넘어섰다.

반면, 올해 10월까지의 H&G 생산량은 48만 475톤으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 69만 8,562톤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올해 월 평균 생산량은 4만 8,047톤으로 지난해 5만 8,217톤 대비 감소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3일자

中 다렌 가공허브,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쇄 지속 명태·대구 등 공급 차질 우려

다렌시 당국은 지난 11월 8일 관내 모든 콜드체인(저온 공급망) 식품 회사에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춘절 연휴를 감안하면 폐쇄 조치는 사실상 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쥘헨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지 3주가 지났다.

해당 지역의 주문에 대한 배송은 당초 최대 4~6주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발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내년 2월 말까지 컨테이너를 출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명태, 대구, 연어, 붕어 등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2일자



美, 2022년 알래스카 명태 TAC 감축 가능성 높아

과학 자문단, 지난해 대비 32% 감소한 ABC 111만톤 제안

11월 중순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어업-어획 평가(SAFE)에서 제안된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은 111만 1,000톤으로, 2021년 ABC인 162만 6,000톤 대비 크게 감소했다.

TAC는 법률상 ABC 이하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 TAC는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TAC는 ABC보다 18% 적은 137만 5,000톤이었고, 2020년 TAC는 ABC보다 30% 적은 142만 5,000톤이었다.

NPFMC 과학통계위원회(SSC)는 어업-어획 평가 데이터를 사용해 NPFMC의 TAC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NPFMC는 이를 통해 TAC를 설정한다. SSC는 12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알래스카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TAC는 ABC에 매

우 근접한 수치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수급난을 겪고 있는 세계 필렛 블록연육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PBO(가시제거) 필렛 블록의 현물 가격은 톤당 4,200~4,300 달러이다. 올해 B시즌 대규모 계약은 A시즌 대비 150 달러, 지난해 대비 350 달러 높은 톤당 약 3,850 달러에 성사되었다. 2009년 명태 TAC가 2008년 대비 18만 5,000톤 감소한 81만 5,000톤으로 설정된 이후, PBO 가격이 톤당 4,500 달러까지 상승한 전례가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30일,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30일자

中 신규 라벨 규정으로 러시아 명태 업계 반발

러시아 측 "새 요구사항 충족 불가능" 주장

중국 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수입품 표기법에 러시아 명태 업계가 전면적으로 반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 해관총서 명령에 따르면, 수출업체는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포장 내외부에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신규 조치에 따르면 이 라벨에는 제품 생산자, 제품명, 어획한 어선명, 어획 장소 등의 기본 정보 외에 어업, 가공, 운반선, 냉동 창고 시설 등 수출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등록 번호 및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의 Alexey Buglak 회장은 새 규정이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선상 가공의 경우 사전에 운반선

및 냉동 창고의 이름을 아는 것과 내부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uglak 회장은 Dmitry Patrushev 러시아 농업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력을 요청했다.

러시아 Norebo사의 Sergey Sennikov 부국장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세관 당국 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문제가 단순히 규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으나, 규정 자체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6일,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6일



러시아, 투자쿼터 제2탄 법안 발표

신규 3개 어획 쿼터 시스템 도입

러시아 농업부는 수생생물자원의 어획쿼터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생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규 어획 쿼터는 △투자쿼터 제2탄, △게 어획쿼터 경매 제2탄, △투자 목적의 시장가치가 높은 어종 쿼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설정된다.

투자쿼터 제2탄은 명태 등 어종의 TAC 20%를 투자쿼터로 배정하고 어선 건조와 수산 가공장 건설에 각각 10%씩 배분한다.

또한 내용의 차이로 투자쿼터 제1탄 참가자의 어획 쿼터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TAC의 4%를 보상 조정용으로 설정한다. 여기에 투

자쿼터 제1탄의 20%를 합산하면, 대상 TAC의 44%를 투자쿼터로서 배분하게 된다.

투자쿼터 제2탄의 개시 시점은 수산가공장 건설의 경우 2022년, 어선 건조의 경우 2023년이다.

시장가치가 높은 어종의 쿼터 경매의 경우, 어업 인프라 정비 등의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의무화한다. 가리비·해삼·성게 등 시장가치가 높은 자원의 어획 쿼터는 100% 경매로 배분된다.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개시된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1년 11월 30일

러시아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안, 하원서 승인

명태 이용세 4,300 루블로 인상

러시아 하원은 제1독회(심의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 이용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이 채택될 경우, 이용세가 대폭 인상되지만 자국 조선소를 통해 어선을 신조·개조한 자, 자국 육상 가공 공장에 공급하는 연안 어업자, 고차 가공 제품의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공제 혜택이 있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주요 어종의 인상안은 △오호츠크해 명태: 톤당 4,300 루블(이전 3,500 루블), △그 외 해역 명태: 4,300 루블(2,000 루블), △가자미류: 2,100 루블(1,000 루블), △넙치류

(검정가자미 포함) 1만 2,600 루블(3,500 루블), △홍연어: 8만 루블(3만 5,000 루블), △대게: 8만 루블(3만 5,000 루블)이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수산자원 이용세의 지수에 디플레이터(명목 수치에서 물가 변동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 수치를 얻기 위한 계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디플레이터 설정이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기업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1년 11월 10일



러시아, 수출 중심 수산 사업에 세금 인상 추진

자연산 어획물 수출 기업 대상

러시아 의회는 수출 중심 수산 사업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수산청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 세금 관련 법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 어획물을 주로 수출하는 수산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의 개정이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자연산 어획물에 적용되

는 조세 부담액은 2004년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자국 판매와 가공에 중점을 둔 기업들은 2025년까지 인상된 세금의 15%만을 납부한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려면 러시아 상원인 연방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11일자



러시아 냉동 수산물 48주차 가격

일부 품목 상승

48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현물 가격은 지역·어종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극동 지역 핑크 연어와 태평양 청어의 현물 판매 가격은 각각 kg당 130~160 루블, 45~65 루블로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명태와 태평양 대구 현물 가격은 상승해 각각 kg당 70~90 루블(전주 60~80), 165~180 루블(160~175)이었다.

북서부 지역 대구 현물 가격은 kg당 220~250 루블(전주 220~245)을 기록했다. 청어와 연어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kg당 65~95 루블, 155~215 루블(전주 170~220)을 기록했다.

중부 지역의 명태, 대서양 고등어, 연어 현물 가격은 각각 kg당 110~120 루블, 130~140 루블, 170~210 루블로 전주와 비슷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6일



노레보, FEST 그룹 어업 자산 인수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매각 결정

러시아 어업 및 가공 분야 대기업인 노레보 홀딩스가 무르만스크에 기반을 둔 FEST 그룹의 어업 자산을 인수했다.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FEST 그룹은 Strelets사, Taurus사, Eridan사의 모회사이다. 어선 총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렌츠해와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대구, 해덕대구, 고등어, 청어, 정어리 등을 연간 15만톤 정도 어획하고 있다. 현재 투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61m 트롤어선 2척 신조를 주문한 상태이다.

FEST 그룹의 최대 주주인 스위스인 Yuri Prutkov는 올해 7월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된 후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노레보에 인수된 뒤에도 Strelets사, Taurus사, Eridan사는 별도로 운영되며 경영진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노레보는 지난 6월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FAS)으로부터 무르만스크에 본사를 둔 어업 회사 Saami의 인수를 예비 승인받은 바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19일자

러시아 Sistema, 명태·연어 어업 회사 인수 추진

인수 대상 Vityaz-Avto, 명태 연 1만 3,000톤 규모 생산

통신·석유·가스 사업으로 유명한 러시아 재벌 Vladimir Yevtushenkov의 AFK Sistema사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어업·가공 회사 Vityaz-Avto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Vityaz-Avto사는 연간 명태 1만 3,000톤, 청어 1,800톤, 가자미 3,300톤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 해역에서 발견되는 대구의 일종인 navaga의 쿼터 2,900톤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또한 홍연어(sockeye)와 곱사연어(pink salmon) 주요 어업 및 가공회사이며, 이들 중 일부는 M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Vityaz-Avto는 2018년 1월 약 100톤의 명태

필렛·민스, 20톤 이상의 어분 생산이 가능한 가공 공장을 신설했다.

Vityaz-Avto의 연간 총 매출액은 54억 루블(약 7,420만 달러) 규모이며, 순이익은 11억 루블(약 1,510만 달러)이다.

일부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Sistema의 인수는 아직 최종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어업 분야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 부문 확장을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상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23일, Intrafish, 2021년 11월 23일자



日 '21년 11월 말 공치 어획량, 약 1만 8,000톤

3년 연속 최저 어획량 경신 유력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은 지난 12월 10일, 11월 말 시점의 2021년 어기 공치 어획 상황을 발표했다. 어장이 먼 곳에 형성되고 악천후까지 겹친 결과, 2021년 일본 공치 어획량은 총 1만 7,899톤(지난해 동기 대비 34% 감소)을 기록했다. 1950년 붕수망어업이 본격화된 이래 최저 어획량을 3년 연속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일본 전국에서 올해 최초로 4자리 수대인 1,148톤의 어획량을 기록했고, 어체 사이즈가 120~140g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어군이 일본에 접근해 늦가을부터 어획량 회복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공치가 선호하는 저수온 환경이 근해에 형성되지 않았고, 악천후로 인해 11월 어획량은 1만톤에 못 미치는 8,459톤에 그쳤다.

이전의 일본 공치 최저 어획량은 2020년 어기 종료 시점의 2만 9,566톤이었다. 현 시점의 어획량은 그보다 약 1만 2,000톤이나 적다.

12월에 들어선 이후에도, 악천후로 인해 4일까지 대기한 후 조업을 시작했으며, 일본 전국 1일 어획량이 200톤에 그치고 있다. 어체도 마리당 50~80g의 0세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10일 시점 약 10척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이 올해 조업을 종료했으며, 조업중인 어선들도 일본 근해 어장에서 어군을 포착하지 못하면 종료할 계획이다.

한편, 평균 단가는 10kg당 6,240 엔(26% 상승)으로고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11억 1,687만 1,900 엔(17% 감소)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의 경우 어획량이 2% 증가했고 어획 금액도 증가했으나, 혼슈는 어획량이 61% 감소했고 금액 면에서도 크게 부진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 어기가 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日 냉동 공치 재고, 최초로 6,000톤 미만 기록

월간 입고량 1,241톤

일본 농림수산성의 냉장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시점 전국 냉동 공치 재고는 5,762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최저 기록인 2020년 9월(6,089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10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량의 재고 보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 증감이 재고량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입고량은 1,241톤(지난해 동월 대비 14%

감소)이었다. 월간 출고량은 1,672톤으로 지난해 대비 32%나 감소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해 출고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무성 통관통계에 따르면 10월 냉동 공치 수입량은 대만산 229톤, 중국산 36톤, 한국산 7톤 등 총 272톤으로, 지난해 대비 45%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WTO 각료회의 연기 수산보조금 협상 초안 나와

11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수산보조금 합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

한편, WTO는 지난 11월 24일, 수산보조금 협상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어떤 국가도 남획된 자원에 관한 조업 또는 조업 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명기되었다. 어획이 발생하는 연안 회원국 또는 관련 지역수산기구(RFMO)가 남획으로 인정하는 경우 남획 어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남획된 자원과 연관된 조업 관련 보조금일지라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인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조금 폐지까지의 이행 기간을 도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은 0~25년까지

각국의 주장에 큰 격차가 있어, 각료회의에서 판단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전세계 해양 어획량 점유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넣어, 중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초안에는 WTO 회원국이 자국 국기를 걸지 않은 어선에 보조금 수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규모 선단은 개발도상국 국기를 달고 있다. 가령 다수의 중국 어선은 가나 국적선으로 운영된다. 남획 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면제 문제도 여전히 논의 중이며, 심지어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정의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1월 29일,

Seafoodsource, 2021년 11월 29일

美-中, WTO서 강제노동 문제로 충돌 강제노동 정보 통지, IUU 보조금 금지 조항 논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유해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미국은 IUU 수산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WTO 협약에 강제노동 선단에 대한 연간 감사,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WTO가 강제노동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초안의 IUU 어업 관련 조항으로, 어떠한 회원국도 IUU 어업 중

사 선박·업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미-중 양국은 해당 두 사안을 놓고 오랫동안 충돌했다. 지난 1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수산 보조금은 연간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WTO 보조금 통지 의무를 완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3일



ISSF 회원사, 보존조치·공약 준수율 100%

26개 회원사 전부 보존조치 이행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이 최근 발표한 제 6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5년 만에 전 회원사가 보존조치 및 공약을 100% 준수했다.

감사를 받은 ISSF 회원사는 Bolton Group, Frinsa, Jealsa, Nirsa, Princes, Salica, Sapmer, Sea Value, StarKist, Tri Marine, Chicken of the Sea, Bumble Bee, General Tuna 등 26개사이다.

Susan Jackson ISSF 회장은 『2015년 ISSF 참여 기업에 대한 이행 및 감사 절차를 실시한 이후, 준수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시점에서는 ISSF 회원사 중 99.4%가 ISSF 보존 규정을 준수했다. Tesco, Sainsbury 등의 소매업자에게 참치캔 등의 자사 브

랜드 제품을 납품하는 영국 기업 Lovering Foods 만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이제 규정을 완전 준수하고 있다.

보존 조치·공약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는 MRAG Americas가 실시했다. 평가는 2021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20년 시행대책에 대한 참여 기업들의 성과를 점검했다. ISSF의 30개 보존조치는 RFMO 지원, 추적가능성과 데이터 수집, 혼획 완화, 모니터링 제어와 감시, IUU 어업, 용량, 능동적 선박 등록, 사회노동 표준, 기타 등 9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2일

UN “운임 급등, 수년간 세계 무역에 심각한 영향”

해운·물류 대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 존재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2021 해상운송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해운에 미친 영향은 2020년 초기 예상만큼은 아니나 광범위하며, 향후 수년간 해운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UNCTAD는 세계 경제 회복이 운임 상승 우려로 인해 2023년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세계 해상 무역은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치는 지난 20년간 성장치보다 낮은 2.4%로, 중기적 둔화를 보일 전망이다.

UNCTAD는 또한 컨테이너 운임 급등으로 인해 현재부터 2023년까지 전세계 수입 물가가

11%,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지수에서 보고한 상하이-유럽간 현물 운임은 2020년 말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1대당 4,000 달러로, 불과 6개월 전 가격인 1,000 달러 대비 급등했다. 2021년 7월 말에는 7,395 달러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화주들도 운송 지연 및 추가 요금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무역 패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24일



FisheryProgress, FIP 대상 요구사항 완화 고려

행동 강령 서명 대신 다른 인권 정책 채택 가능 등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FisheryProgress는 어업 회사와 선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요구 사항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타이유니온 산하 8개사를 비롯, 해당 플랫폼에 FIP를 제출한 약 45개의 참치 FI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FisheryProgress는 2019년부터 FIP가 인권 및 노동자 권리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갖도록 지원하는 '영구적인 사회적 책임 정책(permanent social responsibility policy)'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플랫폼에서 해당 지침을 적용하면 FIP 참여자 및 FIP 내에서 어획물을 조업, 전재, 운송하는 모든

선원, 선장, 선주 등에게도 적용된다.

본래 FisheryProgress는 모든 FIP가 'FisheryProgress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행동 강령 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인권 정책 약속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FisheryProgress는 별도의 정책을 만드는 대신 특정 FIP에서 발생하는 학대, 강제노동, 아동 노동 혐의 사건에 대한 공개 보고서에 FIP가 응답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10일

EU, 산림파괴 상품 수입 금지 법제화 추진, 다음은?

지속가능성 압력 거세져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산림파괴와 관련된 상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은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와 이들에게서 파생된 일부 제품을 EU 시장에 들여오기를 원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산림파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업체들이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겠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을 내놓은 바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가 이처럼 지속가능성한 세계를 추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참치와 같은 수산물도 추후 수입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참치만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까? 그렇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될까?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24일자



노르웨이 Rimfrost, 선상 가공 크릴 어선 신조

친환경 어선, 최초 선상에서 식품 보조제 생산

노르웨이 Rimfrost사가 의뢰해, 노르웨이 Kongsberg사가 건조하고 Westcon yard사가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인 초현대 선상 가공 어선이 진수되었다.

해당 어선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지속가능 에너지를 사용해,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친환경 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황(low-sulphur) 디젤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디젤-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당 어선은 최대 6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선체는 내년 하반기에 Westcon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어선은 배기가스, 냉각수, 공장 처리 열 등을 회수해 광범위하게 재활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력화로 유압 시스템으로 인한 오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평가

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Rimfrost 경쟁사의 어선에 비해 원료 활용도는 높지만 공정 과정의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tig Remøy 선장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해상에서 어획 후 즉시 건강식품 및 보충제 선상 생산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어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1월 23일

노르웨이 어업 회사, 수소 연료 연승선 신조 계획

디젤,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 구성

노르웨이 어업 회사인 Loran은 화석 연료 소비를 40%까지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승선을 신조할 계획이다.

신조선의 동력원은 기존의 디젤 엔진, 2개의 185kW 수소 연료전지, 2,000kWh 배터리이다.

신조선은 전장 70m로 일반적인 연승선보다 크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1월 19일자





대서양대구 H&G 가격, 14년만의 최고가 근접

2008년 이후 최고가에 가까워

대서양대구 H&G(머리, 내장 제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 결과, 14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1~2.5kg 대구 H&G CFR 중국 가격은 현재 톤당 4,600 달러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저조한 어획 상황으로 인해 지난달 4,300 달러 대비 상승했다. 중국 수입업체에 따르면 일부 노르웨이 공급업체의 CFR 가격 견적은 4,700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러시아 대구 공급업체에 따르면 4,600 달러는 일부 노르웨이 공급업체들이 도달했을 수 있는 가격이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락하기 직전인 2020년 초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북대서양수산물포럼(NASF)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금보다 가격이 높았던 시기는 2008년 톤당

5,300 달러를 기록했을 때가 유일하다.

현재의 가격 상승은 높은 수요, 적은 어획량 및 2022년 바렌츠해 공급 감소 전망으로 인한 것이다. 2021년 미소진 대구 쿼터 15%가 이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바렌츠해 쿼터 20% 감축으로 인해 내년에도 가격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덕대구 가격 또한 강세를 유지했다. 공급업체들에 따르면 1kg 이상 해덕대구 CFR 중국 가격은 톤당 3,900 달러로 지난달 가격인 4,000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고, 0.5~1kg 가격은 톤당 3,500~3,600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2013년과 2014년 외에 이보다 가격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26일

러시아, 태평양대구 TAC 감축

2022년 美 태평양대구 쿼터 증가 예상

러시아가 태평양대구 TAC를 감축하면서 2022년 미국 태평양대구 쿼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래스카 생산량은 러시아의 TAC 증가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2년 TAC는 18만 6,6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2%(2만 6,280톤) 줄어들 예정이다. 서베링해 러시아 주요 조업 수역의 TAC는 9만톤으로 14%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MSC 인증을 받은 생산량은 4만 2,135톤이 될 예정이다.

미국의 태평양대구 TA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

으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 계획팀은 2022년 동베링해 어업의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15만 3,383톤으로 제안했다. 2021년 ABC는 12만 3,850톤, TAC는 11만 1,380톤이었다.

알래스카만의 경우, NPFMC 계획팀은 ABC로 2만 4,043톤을 제안했다. 2021년 ABC는 2만 3,627톤, TAC는 1만 7,321톤이었다. 미국 어업은 전량 MSC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일



페루 9월 양륙량, 저수온·강한 바람으로 감소 오징어 72% 감소

페루 생산부 자료에 따르면, 페루 수산 부문의 지난 9월 양륙량은 7만 4,700톤(금액 3,250만 달러)으로 수량이 57.5%, 금액이 39.2%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식용(인간 직접 소비) 양륙량은 16만 2,400톤이었다. 생산부에 따르면 2개월 연속으로 북중부 연안 수온이 낮아졌고 남부에서 바람이 강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총 양륙량의 45%는 신선 어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고, 냉동(42%), 보존(7%), 통조림(6%) 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9월 냉동 어류 제품 생산에 사용된 어획물의 양은

3만 1,300톤으로, 지난해 9월(8만 2,400톤) 대비 감소했다. 신선, 보존, 통조림용 어획물 양은 각각 3만 3,400톤, 5,500톤, 4,400톤으로 모두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는 오징어(2만 5,700톤, 72% 감소), 전갱이(6,700톤, 63% 감소), 고등어(6,700톤, 63% 감소), 멸치(3,900톤, 57% 감소), 가리비(2,500톤, 43% 감소) 등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새우 어획량은 53% 증가한 2,3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29일



Europêche, 어선원노동협약 하회 라벨 배제 주장 어선원노동협약은 사회적 라벨 인증을 위한 최소 조건 주장

유럽해양수산사회적대화위원회(European social dialogue committee for sea fisheries) 본회의에서 유럽운수노동자연맹(ETF)과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은 어선의 사회적 조건을 인증하는 지속가능성 라벨의 확산에 대해 보다 잘 규제하기 위한 기준 원칙 수립 관련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가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에 명시된 사회적 기준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동의했다.

ETF 수산 부문 의장 Juan Manuel Trujillo는 IL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3국의 사회적 라벨은 유럽 시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2월 24일자



덴마크 어구 회사, 선택적 조업 장치 개발 바다표범, 고래목 동물 혼획 방지

덴마크 어구 회사인 Cosmos Trawl은 새로운 선택적 장치를 개발했다. 해당 장치는 현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어업자에게 10개가 공급되었다.

장치는 트롤선 안쪽에 고정된 원뿔형 그물 형태로 앞쪽에는 T90 그물, 뒤쪽에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물 내에 2개의 정사각형 플라스틱판이 측면에 고정되어 바다표범, 작은 고래목 동물의 경우 그물 후미 부분을 통해 빠져나가게 한다. 반면, 목표 어획물은 플라스틱판을 지나 다시 끝자루(codend)로 돌아가게 한다.

Cosmos Trawl의 Michael Lassen 대표에 따르면 T90 Excluder로 이름 붙여진 이 선택적 어업 장치는 양미리류(sandeel), 작은청어(brisling), 청

어 등을 조업하는 북해 원양 어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실험 결과 성공률은 100%였다.

그물의 원뿔은 끝자루 앞, 후미는 선미에 위치한다.



* 기사 출처: Cosmos Trawl 보도자료, 2021년 11월 16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가정용 냉동식품 가격 인상 내년 2월 1일 납품분부터

일본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マルハニチロ)는 지난 11월 29일, 자사 가정용 냉동식품 일부의 가격을 내년 2월 1일 납품분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마루하니치로에 따르면 대상 상품은 가정용 냉동식품의 '반 정도'에 해당하며, 조리된

식품 65종이 2~10% 가격 인상, 농산품 34종이 5~23% 가격 인상 예정이다.

마루하니치로는 가격 인상 원인으로 포장·재료 비용, 연료 비용 등 비용 상승을 지목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1일



중국, 기존 수산물 브랜드 소비 우위

건강, 유아용, 지속가능성 주목

중국 알리바바 그룹 온라인 식료품 사업부인 Tmall Fresh의 책임자인 Liu Haiyang은 구매 데이터로 보면 소비자들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수산물 브랜드와 제품을 선택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저렴한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Liu는 『2018년에는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출이 신규 브랜드보다 느리게 성장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그 반대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순증량을 정확하게 반영한 새우 제품의 온라인 재구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저칼로리

닭과 같은 운동·건강 컨셉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아용 제품은 수산물을 조리하고 더 작은 크기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Liu는 『팬데믹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더 많은 노년층을 끌어들이면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의 Z세대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currentNews, 2021년 11월 25일자

일본수산, 가정용 연육 등 가격 인상

내년 2월부터 가정용 5~13% 가격 상승

일본수산(주)(日本水産(株))은 지난 11월 19일, 원료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정용 연육, 가정용 냉동식품, 기업용 냉동식품 등의 가격을 내년 2월 1일 거래처 도착분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가정용 연육 약 50개 제품이 약 5~13%, 가정용 냉동식품 63개 제품이 약 4~13%, 기업용 냉동식품 179개 제품이 약 1~13% 인상될 예정이다.

가정용 연육 제품은 어묵, 게맛살 등 어육 제품, 어육 소시지류, 치즈 어묵 등 거의 전 제품이 가

격 인상의 대상이 된다. 해당 제품군의 가격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해당 기업은 가격 인상의 이유로 세계적 수요 확대에 따른 원료 가격 급등, 국내외 인건비 증가, 고유가로 인한 연료·포장 비용 및 물류 비용 상승을 지목했다. 그 중에서도 명태 등 흰살생선 연육 또는 필렛은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최대 생산지인 북미 지역에서 어체 소형화로 생산 효율이 저하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1월 24일



11월 노르웨이 청어·고등어 수출 감소, 가격 상승

고등어 수출량, 특히 한국에서 증가

11월 노르웨이 청어 수출량은 5만 2,700톤, 금액 기준으로 6억 4,000만 크로네(7,040만 달러)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수량 기준으로 2% 감소했지만 금액은 8% 증가했다.

NSC의 원양어류 관리자 Jan Eirik Johnsen은 『11월 기준 올해 11월보다 청어 가격이 높았던 연도는 2016년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당시 쿼터량은 현재의 4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냉동 청어 원어 평균 가격은 올해 쿼터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kg당 7.28 크로네보다 23% 상승한 8.14 크로네를 기록했다.

반면, 11월 고등어 수출량은 4만 3,100톤, 금액 기준 7억 6,400만 크로네이다. 지난해 대비 수량은 25%, 금액은 18% 감소했다. 8~10월 높은 수출량을

기록한 영향으로 11월 수출량이 다소 둔화되었다.

Johnsen은 『올해 쿼터가 30만톤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11월에는 가격이 급상승해 지난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주요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고등어의 11월 평균 가격은 kg당 18.35 크로네로 지난해 동기 16.21 크로네에 비해 13% 상승했다. 11월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특히 강세를 보이며 1만 4,400톤을 기록했다.

NCS의 Johan Kvalheim 한일 총괄이사는 『한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밥 수요가 높아지면서 노르웨이 고등어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인들이 온라인 쇼핑과 같은 새로운 판매 경로로 노르웨이 고등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의 고등어 어획량 감소도 높은 수요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3일자

러시아, 올해 고등어 어획량 대폭 증가

총 5만 9,000톤...지난해 대비 70% 증가

러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16일 러시아 극동 부어 선단은 총 27만 5,000톤의 태평양정어리, 고등어, 태평양꽂치를 양륙했다.

고등어 어획량은 총 5만 9,000톤으로 지난해 2만 4,000톤 대비 70% 증가했다.

태평양정어리 어획량은 21만 5,000톤으로 올해 전체 어획량의 78%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7% 감소했다.

꽂치 어획량은 585톤을 기록했다.

발표 전 주, 러시아 국적선 20척은 EEZ 내에서, 2척은 공해에서 조업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어리와 고등어 어장에서 총 16척의 중대형 러시아 국적선이 조업 중이며, 2척이 꽂치 어장에서 조업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어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말까지 어획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18일



바다로 가면

박 인 혜

거센 파도를 내며
온몸으로 울면서도
바람이 심 없이 달리는 것은
동쪽 끝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바다는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있었다

적은 가슴 바다에 담그면
넓은 마음 내게 보여 주었지

폭풍을 뚫고 가는 그곳에는
새벽 별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2022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171억원 확정

국회 심의에서 806억 원 증액, 2021년 대비 4.1% 증가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365억 원보다 806억 원 증액된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4.1%(2,543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8,337억 원(2021년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 290억 원(2021년 대비 △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072억 원(2021년 대비 11.7%↑)이 편성되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예산(7,825억 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806억 원)된 주요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산분야 주요 예산=수산물, 기자재 등 고부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을 올해보다 44억원 증액해 55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3억원 증액해 143억원 규모로 확충했다.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 주권·질서 확립에 중점 투자하고, 어장환경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6억원을 증액해 15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친환경 양식산업 전환 등에 중점 투자하고 어촌인프라 개선, 청년 유입 등 어촌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증액해 52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수산분야 신규 사업 예산=어촌 활력증진 58억 8000만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3억7000만원, 어선청년 임대사업 4억5000만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어촌소멸 예방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강화 110억원, AI(인공지능)

기반 어선 건조 플랫폼 구축 10억원 등 지속가능한 어업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종자산업 육성 예산 19억2000만원, 우수식 및 디지털 양식혁신 기술 개발 예산으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장 관리실태 조사 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기술개발에 4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구축사업 예산 14억원, 한류연계 수출지원 21억원 등 수출 가공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위판장 방사능 검사 장비 지원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예산으로 1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2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연안정비사업 투자 예산도 올해보다 16억원 증액돼 609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곳의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6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부산수산물산업클러스터 설계비 예산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했다.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으로 75억원을 증액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원 반영됐다.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원이 반영돼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제18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총회 개최

참치 어획할당량 추가확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12월 7일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 제18차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평양참다랑어를 매년 114톤까지 추가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WCPFC는 이번 총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잡을 수 있는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였는데, 특히 산란 전인 소형 참다랑어가 대형어보다 자원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어획할당량을 소형어와 대형어로 구분한 후

소형어 어획할당량의 일부를 0.68대 1 비율로 대형어 어획할당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형어 어획할당량 중 최대 25%까지를 대형어 어획할당량으로 전환(타국 10%)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의 연간 어획할당량 718톤 중 178톤을 대형어 어획할당량 262톤으로 전환(84톤 추가)하였고, 대형어 어획할당량 3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년 832톤(2021년 대비 114톤 증가)을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 개시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요청서 송부 예정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지난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요

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제출검토 → 법제처 검토 → 차관·국무회의 → 국회 심의 및 동의 → 비준

한편, 해양수산부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하여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 85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개조 및 수리,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양어선 설계 및 선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0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선사와 남서대서양 과학연구 선도

공해상 선제적인 과학연구 기여로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 인정받을 것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남서대서양 공해에서 책임 있는 원양어업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양선사와 함께 이 해역에 서식하는 파타고니아이빨고기(이하 '메로')에 대한 과학조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로의 단·장기적 이동과 행동특성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산과학원과 원양선사(정일산업㈜)는 2018~2019년 동안 50마리에 위성전자표지(해양생물의 이동연구를 위해 개발된 표지로 수심, 수온 등을 감지하는 전자센서가 내장되어 위성을 통해 정보를 받음)를 부착·방류하여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서 방류한 메로는 약 1,000 km 떨어져 있는 사우조지아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다.

메로는 맛과 향이 좋아 고급어종으로 대우받고 있지

만 남극해를 포함한 남반구 해역의 수심 1,000 m 이상의 심해에서만 어획되는 어종이라 생활사가 많이 밝혀져 있지 않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해에는 국제수산관리기구가 설립돼 해당 지역의 주요 어종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남서대서양에는 국제기구가 없어 국내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서대서양에서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로의 과학조사는 향후 이 지역에 설립될 지역 수산관리기구에서 메로의 자원상태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리기구에서 메로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등 어획쿼터를 배정할 때 이러한 과학조사 활동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장 임명

“해운재건 5개년 수산혁신 2030 성공 앞장”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을 임명했다.

우 신임 원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장관비서관, 감사담당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거쳤다. 해수부는 우 신임 원장이 해양수산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 원장은 지난6일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우 원장은 올해가 근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직원들에게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함께 다져 나가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우동식 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통영 지역 가두리 양식장과 굴 가공공장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방탄소년단 진 '슈퍼참치' 열풍

5일 연속 유튜브 전 세계 인기 동영상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스페셜 송 '슈퍼참치'가 전세계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진은 지난 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방탄소년단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작곡 '슈퍼참치'를 공개했다. '슈퍼참치'는 낚시를 좋아하는 진의 만선에 대한 열정과 염원이 담긴 곡으로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 귀여운 가사가 인상적인 B급 감성 곡이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 있는 안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틱톡, 유튜브 등에서는 '슈퍼참치' 댄스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6일 틱톡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클럽에서 손님 전원이 '슈퍼참치' 챌린지를 진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외국인들은 슈퍼참치가 시작되자 다 함께 폐창을 시작했다. 후렴구 '참치!'에 맞춰 물고기를 표현한 듯한 춤을 따라추기도 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외국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슈퍼참치"를 연호했다.

지난 10일 틱톡에는 외국의 한 유치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다 함께 슈퍼참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최소 14명의 아이들이 진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며 춤을 따라춘다. 이들은 춤을 추면서 가사에 맞춰 "참치!"를 다 같이 외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도 '슈퍼참치' 챌린지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슈퍼참치'는 공개된 후 5일 연속 유튜브 전 세계 인기 동영상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웨이보에서는 진의 생일 동영상이 트렌딩 1위에 올랐다. 또 '슈퍼참치'는 '빌보드 핫 트렌딩 송 차트'에서 8위에 진입했다. 또 틱톡에서는 '슈퍼참치'를 뜻하는 'SuperTuna' 해시태그가 8,06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올해 수산식품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수출 V자 반등, 25억 3천만 달러 넘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30일 기준(누적),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25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20억 7천만 달러) 대비 21.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19년의 연간 실적 25억 1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이렇게 수산식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최근 세계 경기 및 교역 회복으로 수출에 우호적인 대외여건

이 마련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2015년 약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김, 참치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의 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평균 7.5% 증가해 2019년 25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1년 만에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며 회복한 것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 영 지 원 본 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 괄	해외협력 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박설진 차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 괄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 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김영수 과장	589-1609	홍 보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 괄	부산 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 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공인		이영두 팀 장	051)	차량계량	
				계량소	이동주 팀 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7	인사, 행정, 정보조사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9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1년 1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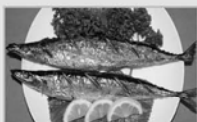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